

2021년도 조사보고서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MBN**

공정

신뢰

품격

MBN 종합뉴스  
MBN AI 앵커 뉴스  
굿모닝 MBN  
뉴스추적  
픽 뉴스  
아침 & 매일경제  
뉴스파이터  
MBN 프레스룸  
MBN 뉴스와이드  
MBN 뉴스와이드 주말  
시사스페셜  
김주하의 오프닝  
전국네트워크뉴스  
스포츠뉴스  
굿모닝 월드  
MBN 뉴스특보

**MBN**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책임연구원 : 전희락(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황성연(닐슨미디어코리아 부장)

연구보조원 : 강민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MBN**

이 조사보고서는 2021년도 MBN의 의뢰를 받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MBN의 공식적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요약문

---



# 요약문

## □ 연구목적

- 본 조사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재승인 의결과정에서 부여된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평가를 수행함.
  - ▷ 2020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N 재승인 심사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수적 조건을 요구함.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보도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 등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 이에 본 조사연구는 MBN이 편성하고 있는 개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통해 MBN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 및 공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 또한 본 조사연구 목적은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프로그램 시청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여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평가하고, 이를 취합하여 프로그램별 강약점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다른 방송사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이처럼 MBN이 편성하고 있는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방송사의 공적 책

임과 공정성 개념을 개별 프로그램 평가의 총합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수용자의 MBN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 ▷ 이같이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는 또 다른 목적은 개별 프로그램들에 내포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 방송법에서 규정된 공정성과 공익성은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핵심적 가치로 규정하고 프로그램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역할을 방송 재허가를 위한 방송평가의 주요한 항목으로 설정함.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과정에서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음(문재완, 2010; 이강형·최현주, 2012).
  - ▷ 방송법 제32조 1항은 방송사업자의 방송 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배경은 방송의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방송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민주적 기능 때문.
  - ▷ 방송 공정성의 발현은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부과된 기본적 책무이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에서 방송의 역할인 공익성도 실현되기 때문임.
  - ▷ 방송의 편재적 속성으로 인해 방송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올바른 여론형성에 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전제는 바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데 필요한 공정성임.
  - ▷ 결국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민주사회에서 여론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

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송의 역할 실현은 뉴스·시사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임.

-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은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특정 뉴스 항목임.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특정 채널의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뉴스 항목(아이템)에 한정하여 평가된 결과를 적용하고 있음.
  - ▷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프로그램 내의 개별 뉴스 아이템의 전달 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현행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제재 체계는 개별 뉴스 항목의 문제점을 심의한 결과를 총합하여 특정 채널이나 방송사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 개별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평가를 조사하여 해당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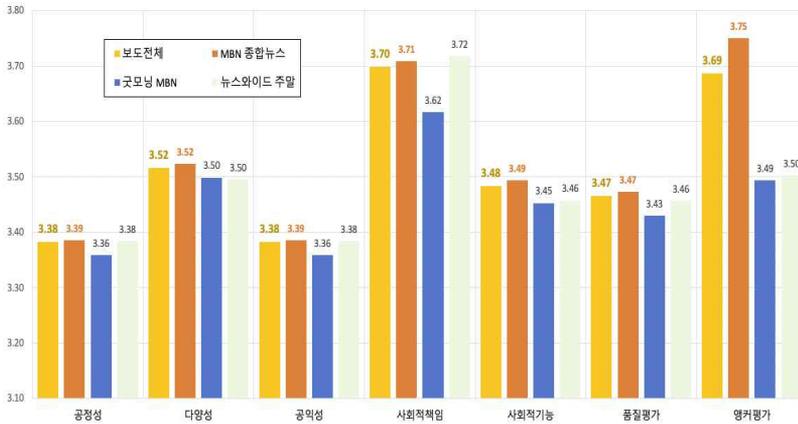
## □ 조사설계 및 방법

- 설문 척도 개발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중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관련있는 규정들을 설문 문항으로 설정. 설문항목은 크게 ①공정성, ②다양성 ③공익성 ④사회적 책임 ⑤사회적 기능(정보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⑥품질평가(KI), ⑦진행자 평가를 추가하여 7개 차원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의 하위 평가 척도들을 다수 개발하여 완성하였음. 다른 채널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항목의 대표 문항을 1개씩 추출하여 비교항목을 구성하여 조사함.

-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웹서베이 방식으로 (주)메트릭스가 2021년 12월 6일~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수행함.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0\%$ 임.

##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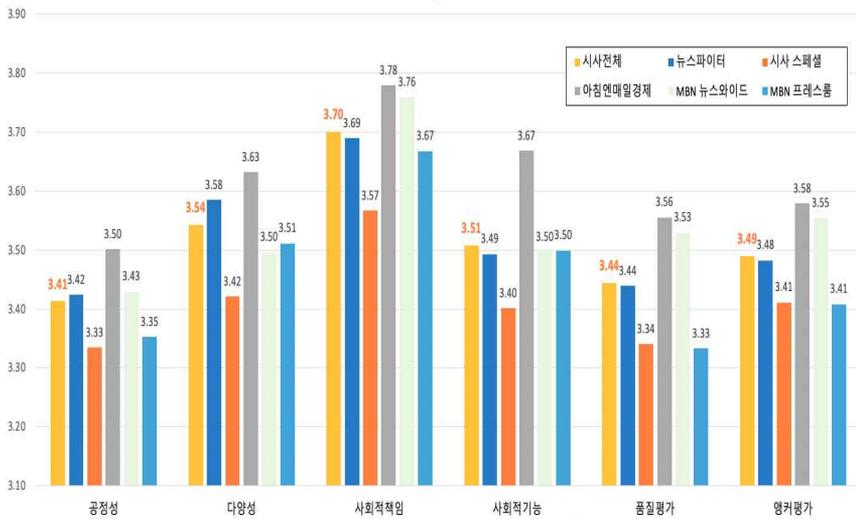
-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7가지 차원의 평가를 보다 요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평가 차원의 평가항목을 평균하여 각 차원의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여 보았음.
- ▷ 평가 차원에서 가장 높은 차원은 사회적 책임(m=3.70), 앵커 평가(m=3.69), 다양성(m=3.52) 순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 외 공정성(m=3.38), 공익성(m=3.38), 품질평가(m=3.47), 사회적 기능(m=3.48)으로 평균 3점 이상이었음.



[그림 1] MBN보도 프로그램 평가결과

-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7가지 차원의 평가를 보다 요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평가 차원의 평가항목을 평균하여 각 차원의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여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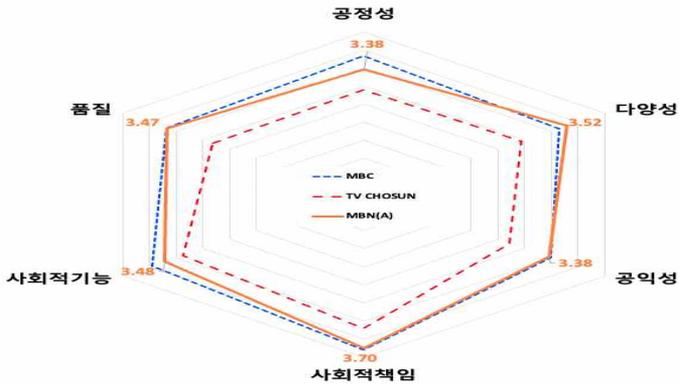
▷ 평가 차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차원은 사회적 책임(m=3.70), 다양성(m=3.54), 사회적 기능(m=3.51) 순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3.5 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 외 공정성(m=3.41), 공익성(m=3.41), 품질평가(m=3.44), 앵커평가(m=3.49) 항목으로 평균 3 점 이상이었음.



[그림 2] MBN 시사 프로그램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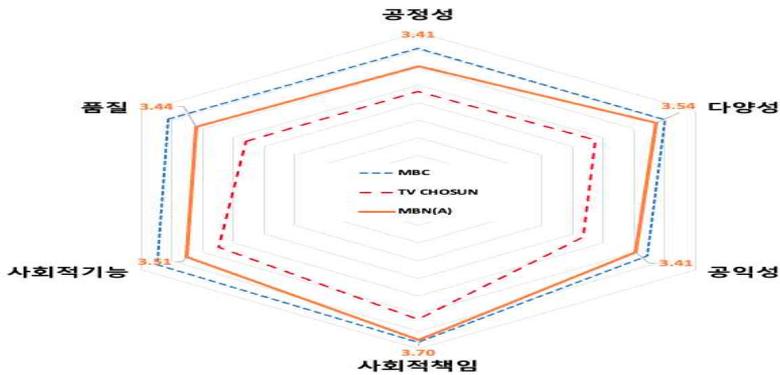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른 채널과 비교하기 위하여 지상파 채널(MBC)과 종합편성채널(TV CHOSU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 조사하였음.

▷ MBN의 뉴스 프로그램은 MBC의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 차원은 MBC보다 높았음.



[그림 3] 뉴스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교

- ▶ MBN의 시사 프로그램은 MBC보다 낮고, TV CHOSUN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 시사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교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시청자에게 조사 결과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공익성과 공정성 차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 공정성과 공공성 차원의 보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프로그램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함.

〈표 2〉 프로그램별 평가결과

	프로명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책임	사회적기능	품질평가	앵커평가
보도	굿모닝 MBN	3.36	3.50	3.36	3.62	3.45	3.43	3.49
	뉴스와이드 주말	3.38	3.50	3.38	3.72	3.46	3.46	3.50
	<b>MBN 종합뉴스</b>	<b>3.39</b>	<b>3.52</b>	<b>3.39</b>	<b>3.71</b>	<b>3.49</b>	<b>3.47</b>	<b>3.75</b>
시사	뉴스파이터	3.42	3.58	3.42	3.69	3.49	3.44	3.48
	시사 스페셜	3.33	3.42	3.33	3.57	3.40	3.34	3.41
	<b>아침엔매일경제</b>	<b>3.50</b>	<b>3.63</b>	<b>3.50</b>	<b>3.78</b>	<b>3.67</b>	<b>3.56</b>	<b>3.58</b>
	MBN 뉴스와이드	3.43	3.50	3.43	3.76	3.50	3.53	3.55
	MBN 프레스룸	3.35	3.51	3.35	3.67	3.50	3.33	3.41

○ 결론적으로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규제나 제도적 기구에 의해 개선되기보다 제작진의 기본적인 저널리즘 인식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임.

▷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실제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명확한 관리체계를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임.

▷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널리즘 윤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확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됨.

목 차  
contents

I. 연구개요 .....	1
I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5
1. 연구목적 .....	5
2. 구성 및 범위 .....	12
III.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	17
1.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평가체계 .....	17
2. 공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 .....	23
1) 다차원적인 방송 공정성 개념 .....	23
2) 종합편성채널 보도 프로그램 선행연구 .....	29
3) 종합편성채널의 선거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	33
4)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	36
IV.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 방법 .....	45
1. 평가 척도 개발 .....	45
2.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 .....	48
3. 조사 방법 및 대상 .....	49

<b>V. 조사 결과</b> .....	<b>53</b>
1. 뉴스 접촉 플랫폼 경로 .....	53
2. 뉴스 프로그램 평가 결과 .....	55
1) 공정성 평가 결과 .....	57
2) 다양성 평가 .....	61
3) 공익성 평가 .....	66
4) 사회적 책임 평가 .....	71
5) 사회적 기능 평가 .....	74
6) 품질평가 .....	78
7) 앵커 평가 .....	81
8) 소결 .....	85
3. 시사 프로그램 평가 결과 .....	90
1) 공정성 평가 .....	92
2) 다양성 평가 .....	96
3) 공익성 평가 .....	100
4) 사회적 책임 평가 .....	104
5) 사회적 기능 평가 .....	110
6) 품질평가 .....	114
7) 앵커 평가 .....	117
8) 소결 .....	121
4. 다른 채널과의 비교 .....	126
1) 뉴스 프로그램 평가결과 .....	127
2) 시사 프로그램 평가 .....	129
5. 패널이 등장하는 시사 프로그램(패널토론프로그램) 평가 .....	132
<b>VI. 결론 및 제언</b> .....	<b>139</b>
1. 조사 결과 요약 .....	139
2. 제언 .....	142

〈표 1〉 프로그램별 평가결과 .....	7
〈표 1〉 종편·보도채널 보도교양 프로그램 제재 의결현황(단위 :건) .....	21
〈표 2〉 철도노조파업보도의 앵커/기자 및 취재원 태도별 보도 관점 스펙트럼 .....	30
〈표 3〉 설문문항과 척도 .....	47
〈표 4〉 조사대상 프로그램 정보 .....	48
〈표 5〉 응답자 속성 .....	50
〈표 6〉 한 달간 뉴스 획득 경로 .....	53
〈표 7〉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뉴스획득 경로 조사 결과 .....	54
〈표 8〉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조사 결과 .....	57
〈표 9〉 연령별 시청자 집단의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59
〈표 10〉 뉴스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향별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61
〈표 11〉 뉴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결과 .....	62
〈표 12〉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64
〈표 13〉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65
〈표 14〉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조사 결과 .....	67
〈표 15〉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68
〈표 16〉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70
〈표 17〉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조사 결과 .....	71
〈표 18〉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72
〈표 19〉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74
〈표 20〉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조사 결과 .....	75
〈표 21〉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76
〈표 22〉 정치적 성향별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77
〈표 23〉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조사 결과 .....	78
〈표 24〉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80
〈표 25〉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81
〈표 26〉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 평가 결과 .....	82
〈표 27〉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84
〈표 28〉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85
〈표 29〉 뉴스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별 결과 .....	86
〈표 30〉 뉴스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별 세부 집단별 평가결과 .....	87

〈표 31〉 뉴스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 .....	88
〈표 32〉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조사 결과 .....	92
〈표 33〉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94
〈표 34〉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95
〈표 35〉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결과 .....	97
〈표 36〉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98
〈표 37〉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00
〈표 38〉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결과 .....	101
〈표 39〉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03
〈표 40〉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04
〈표 41〉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조사 결과 .....	105
〈표 42〉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07
〈표 43〉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09
〈표 44〉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조사 결과 .....	111
〈표 45〉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12
〈표 46〉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14
〈표 47〉 시사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조사 결과 .....	115
〈표 48〉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16
〈표 49〉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17
〈표 50〉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평가 결과 .....	118
〈표 51〉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19
〈표 52〉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	120
〈표 53〉 시사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별 결과 .....	123
〈표 54〉 시사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	124
〈표 55〉 타 채널 뉴스/시사 프로그램 전체 평가항목 .....	126
〈표 56〉 보도 프로그램 평가의 채널 간 비교 .....	128
〈표 57〉 시사 프로그램 평가의 채널 간 비교 .....	131
〈표 58〉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평가 비교 .....	134
〈표 59〉 프로그램별 평가결과 .....	142
〈표 60〉 보도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 상관관계 .....	143
〈표 61〉 시사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 상관관계 .....	143
〈표 62〉 10가지 저널리즘 기본원칙 .....	145

[그림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2
[그림 2]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 모형 .....	27
[그림 3] 프로그램 선택과정 .....	49
[그림 4]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 .....	55
[그림 5] 뉴스 프로그램 시청정도 .....	56
[그림 6]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사 프로그램 .....	90
[그림 7] 시사 프로그램 시청정도 .....	91
[그림 8]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 평가결과 .....	140
[그림 9] 뉴스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교 .....	141
[그림 10] 시사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교 .....	141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I. 연구개요

---



# I. 연구개요

## ○ 조사 목적

- ▶ 본 조사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재승인 의결과정에서 부여된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 조사의 주요 대상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방송사로 평가를 받지만,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은 개별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치가 시청자에게 노출되어 나타나는 장기적인 과정임.
- ▶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 ○ 설문 개발

-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관련 법 규정과 기존 연구를 탐색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 그러나 현행 법규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관련 연구들도 특정 기간 또는 사안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음.
- ▶ 이에 관련 법 규정을 설문 문항으로 수정하여,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MBN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여기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KI)와 진행자의 특징 등의 추가항목을 포함하였음.

## ○ 조사 방법

-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설문 항목을 개발하고 MBN의 프로그램 중 조사 대상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뉴스 3개, 시사 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 설문조사는 (주) 메트릭스가 2021년 12월 6일~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하여 응답결과를 취합함.
- ▶ 표집 방식은 전국 시도별 인구비례와 성별에 따른 할당 방식으로 배분하였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0\%$ 임.

## ○ 분석방법

- ▶ 통계패키지(SPSS 20.0+, R Studio)를 이용해 조사자료를 기술분석(Descriptive statistics)하고, 통계적 차이를 추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 과정에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 유형 내에서의 상대적인 평가와 더불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 아울러 각 차원의 동일한 대표 설문 문항을 통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1개씩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MBN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 연구수행주체

: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I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 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연구목적

- 방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되어 짐.
  - ▷ 방송의 공적 책임은 본래 전파 스펙트럼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사업자에게 공공재인 전파 자원을 수탁하여 방송을 운용하도록 하는 허가(license)제도에서 출발하였음.
  - ▷ 이후 방송 기술의 발전으로 전파의 한계가 극복되었으나, 지대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공재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 주장됨.
  - ▷ 특히 국가로부터 방송 운영권을 허가받는 사업자는 독점적 지위를 통해 안정적 이익구조를 가질 수 있었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은 허가 사업자에게 기본적인 책무로 작동하여 왔음.
  
- 최근 등록 채널의 약진과 방송 서비스의 다양화, 해외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으로 허가된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이익구조가 붕괴되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 이러한 주장 배경으로 인해 방송 사업 주체의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분리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의 범위와 역할을 구분하자는 논의도 있음(방송제도 개선 추진반, 2020).
  - ▷ 이들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송법에 기반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직 허가방송사업자의 핵심적 책무로 인식됨.

-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은 제도적 장치임.
  - ▷ 방송법 제1장은 다음과 같이 방송법의 제정 목적이 공적 책임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송법 제5조는 방송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 ②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 이바지 및 지역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 조장 금지
  - ③ 타인의 명예를 훼손 및 권리 침해 금지
  - ④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 및 사행심 조장 금지
  - ⑤ 음란·퇴폐 또는 폭력 조장 금지
  
- 방송법 제6조는 방송법 5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공정성과 공익성’에 두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9가지 항목으로 규정함.
  - ①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 ②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차별하지 않는 프로그램 편성 의무
  - ③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 존중 및 국민 기본권 옹호 및 국제 친선 증진
  - ④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신장
  - ⑤ 소외계층 이익
  - ⑥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 ⑦ 사회교육기능 신장,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보급, 국민 문화생활 향상

- ⑧ 표준말 보급 및 언어순화
- ⑨ 다양성 확보 및 균등한 기회 제공
- 방송법에서 규정된 공정성과 공익성은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핵심적 가치로 규정하고 프로그램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역할을 방송 재허가를 위한 방송평가의 주요한 항목으로 설정함.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과정에서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음(문재완, 2010; 이강형·최현주, 2012).
  - ▷ 방송법 제32조 1항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을 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이 규정은 다른 유형(type)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되지만, 특히 뉴스·시사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 물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뉴스·시사 프로그램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임.
  - ▷ 그러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방송 사업의 재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임.
  -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을 규정한 방송법 제17조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했는지에 따르게 하고 있음.
  -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송법 제6조에 규정된 공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규정된 바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인데, 이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

- ▷ 결국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의 중심 프로그램은 뉴스·시사 프로그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음.
- 이같이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배경은 방송의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방송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민주적 기능 때문.
  - ▷ 방송 공정성의 발현은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부과된 기본적 책무이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에서 방송의 역할인 공익성도 실현되기 때문임.
  - ▷ 방송의 편재적 속성으로 인해 방송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강력하므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전제가 바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데 필요한 공정성임.
  - ▷ 결국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민주사회에서 여론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송의 역할 실현은 뉴스·시사 프로그램에서 주로 수행되기 때문임.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의 책임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최고 가치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상 어려움이 존재함.
  - ▷ 현재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평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 결과, KI 방송프로그램 품질평가 결과, 그리고 허가 과정의 전문가 평가에 의존하고 있음.
  - ▷ 그러나 이들 방법론 모두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 방법론을 갖추지 못함. 또한, 이들 평가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학계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 이처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방법론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방송의 공적 책임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역할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둘째, 방송의 공정성도 이슈나 상황, 바라보는 수용자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셋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의 다층적 구조 때문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는 방송평가의 하위 범주에 불과하고(이강형·최현주, 2012),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의 세부 항목에 불과함. 이런 이유로 어떤 차원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

-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평가의 가장 타당한 방법은 방송 수용자에 의한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합을 근거로 하는 평가일 것임.
  -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전파의 수탁자로서 방송사업자가 봉사해야 하는 방송 수용자의 직접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 그런데 특정 방송 채널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수용자 인식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는 위에서 논의한 방송 허가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평가하는 방법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 결과, KI방송프로그램 품질평가 결과, 그리고 허가 과정의 전문가 평가-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 역시 존재함.
- 또한,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의 평가를 취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방송평가의 항목인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은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며,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공적 기능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취합하여 방송사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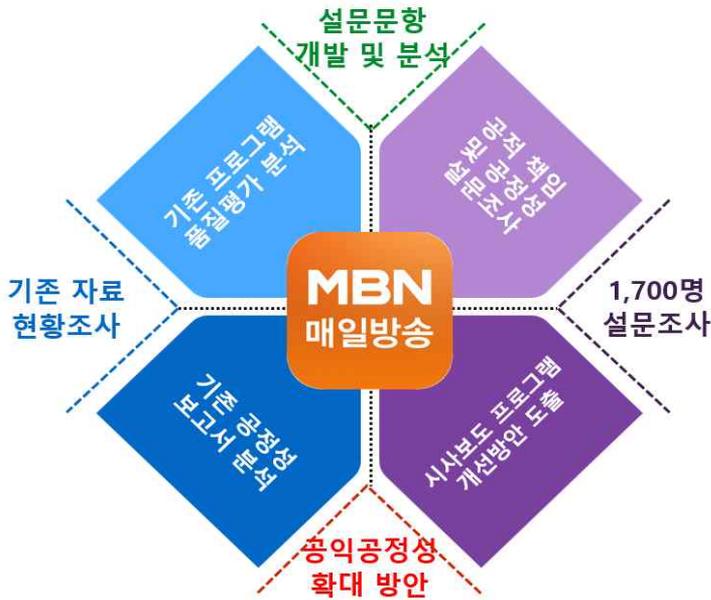
- ▷ 수용자는 다양한 매체와 서비스를 통해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임.
  - ▷ 최근의 뉴스·시사 프로그램 소비가 방송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YouTube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통해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수용자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책임과 공공성 판단은 변화한 소비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평가 형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평가하는 형식이라고 판단됨.
- ▷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방송평가 체계 내에서 평가하는 것은 법제도 영역에서 규정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제도적 평가와 달리 시청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임.
- 본 조사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재승인 의결과정에서 부여된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평가를 수행함.
- ▷ 2020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N 재승인 심사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수적 조건을 요구함.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보도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 등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 이에 본 조사연구는 MBN이 편성하고 있는 개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통해 MBN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 및 공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 또한, 본 조사연구 목적은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프로그램 시청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여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평가하고, 이를 취합하여 프로그램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다른 방송사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이처럼 MBN이 편성하고 있는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개념을 개별 프로그램 평가의 합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수용자의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 ▷ 이같이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는 또 다른 목적은 개별 프로그램들에 내포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2. 구성 및 범위

- 본 연구는 [그림 1]의 모델에 따라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구성함.
-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에 논의된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탐색함.
- ▷ 이를 통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조작화(Operationalizatio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그림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 선행연구들이 논의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 척도들은 방송 채널에 대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적 평가(즉, 총합적 인식 평가)를 위해 조작된 개념들이어서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선행연구들은 방송사에 대한 평가가 아닌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연구는 특정 시기의 특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된 평가 척도 중에서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척도를 선별하여 설문 문항으로 개발하기로 함.
- ▷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프로그램 품질평가 조사에 활용하는 KI방송프로그램품질평가 척도를 참조하여 평가 척도를 개발함.
- ▷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2020년에 편성되었던 MBN의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적 평가를 설문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함.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Ⅲ.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



## Ⅲ.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 1.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평가체계

-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개념이 모든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개별 뉴스·시사 프로그램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함.
  - ▷ 국내 방송환경을 규정하는 가장 큰 제도적 틀은 방송법이며, 방송법은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와 규제방식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 ▷ 한국 방송환경이 소수의 공영방송 중심체계에서 다수의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가 경쟁하는 방송환경으로 구도가 변했음에도 방송법은 기존에 공영방송에 요구했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음(문재완, 2010).
- 현행 방송법 제5조(공적 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방송법(가칭 통합방송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래로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음.
  - ▷ 현행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개념은 처음 제정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개념은 선언적 의미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과 연결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근거임.
  - ▷ 방송법 제32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는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매체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할 실제 세부 조항의 부재로 원칙론의 제시로 그치고 있음(이향선, 2017, 14쪽).

- 현행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은 다음과 같이 다원적 개념으로 구성됨.
  - ▷ 인간 존엄성, 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의 화합, 갈등 금지, 명예 및 권리 침해 금지, 부도덕한 행위 및 사행심 금지, 건전한 가정생활, 음란·퇴폐·폭력 금지 등
  - ▷ 즉, 인간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 이외에는 법률적, 윤리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사항들에 대한 제한을 중심으로 법 조항이 구성되어 있음.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규정된 방송의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개념 역시 다음과 같이 다원적 개념으로 구성됨.
  - ▷ 공정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차별금지, 언어표현, 국민의 알권리 추구, 민족문화 및 사회교육 기여 등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2조는 방송법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또는 유통된 이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방송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방송법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방송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심의 사안으로 한정됨.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있음.
  - ▷ 이를 근거로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윤리적 수준, 폭력 및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기법,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언어를 중심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음.
  - ▷ 방송심의규정 제2장 일반규정에서는 방송법의 9개 조항을 구체화하여 심의 기준을 ①공정성, ②객관성, ③권리침해금지, ④윤리적 수준, ⑤소재 및 표현기법, ⑥어린이 청소년 보호, ⑦광고효과, ⑧방송언어, ⑨기타의 항목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함.
  -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의 제재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음.
  - ▷ <표 1>의 프로그램 심의 제재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프로그램 중 보도·교양의 심의 제재 대부분은 객관성 항목임을 알 수 있음.
  - ▷ 다음으로 대담·토론 프로그램, 품위유지 항목 순으로 나타남.

<표 1> 종편·보도채널 보도교양 프로그램 제재 의결현황(단위 :건)

항목	2020	2019	2018	2017
공정성	-	4	5	7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9	5	8	25
<b>객관성</b>	<b>51</b>	<b>43</b>	<b>48</b>	<b>28</b>
출처명시	1	1	6	-
통계 및 여론조사	2	1	1	-
사생활 보호	2	3	2	-
명예훼손 금지	2	3	2	2
인권보호	4	16	6	2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6			
재난 등에 대한 정보제공	-	3	1	
피해자의 안정 등	1			
품위유지	9	3	7	2
양성평등	1	7	10	-
문화의 다양성 존중	-	3	1	-
법령의 준수	-	2	1	-
성표현	-		4	-
폭력묘사	-		1	-
충격·혐오감	1		6	3
범죄 및 약물묘사	5	8	4	1
자살묘사	9	1	3	-
의료행위	1	1		
수용수준	-			-
광고효과	1	10	13	-
간접광고	-			
방송언어	1	3	2	1
방송사고	-			-
건전성				
공개금지				
윤리성		2	2	-
비과학적 내용		1		
사회통합				
출연		1		
재연연출			1	
공개금지		1		
생명의 존중			1	
등급분류 및 표시 규칙	-			
방송심의기준 법령준수	-			
<b>합계</b>	<b>107</b>	<b>122</b>	<b>135</b>	<b>71</b>

출처 : 『방송통신심의연감』, 각년도, 재정리

- ▷ 주요 제재 항목들의 방송심의규정을 살펴보면 객관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서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의 근거는 개별 프로그램의 기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

- ▷ 대담·토론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제13조,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27조 역시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과 사안의 판단 근거를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
- ▷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한 공정성 관련 심의 제재는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제재 건수가 한 건도 없었음.

○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은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특정 뉴스 항목임.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특정 채널의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뉴스 항목(아이템)에 한정하여 적용됨.
- ▷ 결국,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는 각 뉴스 항목에 대한 심의 결과를 취합하는 평가임을 알 수 있음.
- ▷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프로그램 내의 개별 뉴스 아이템의 전달 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현행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제재 체계는 개별 뉴스 항목의 문제점을 심의한 결과를 총합하여 특정 채널이나 방송사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 다시 말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방송의 기본적인 책무로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별 뉴스 항목을 심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취합하여 방송사를 평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 개별 프로그램 소비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장단점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 공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기존 연구

### 1) 다차원적인 방송 공정성 개념

- 방송의 공적 기능과 법적 규정 그리고 심의 등의 공적 제재뿐만 아니라 방송사 재허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방송 공정성 문제임.
  - ▷ 방송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등의 개념이 방송 저널리즘 영역에서 공익성을 구성하는 개념이며,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심의 기준이며, 방송 재허가를 위한 방송사 평가 요건임(윤성옥, 2009).
  
- 방송의 공정성 개념은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은 비판의 대상임.
  - ▷ 방송 공정성 개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국회 탄핵 과정의 반복 방송 사태, 2008년 MBC 광우병 파동, 황우석 보도 파문 등과 같은 국내 정치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때때로 방송편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치적·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함.
  - ▷ 위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 발생하여 공정성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 항상 공정성 개념이 내포한 모호성과 자의성으로 인해 공정성 개념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함(강명구, 2004 ; 원용진·전규찬 외, 2006 ; 이민웅 외, 2006 ; 지승호 외, 2010).
  
- 공정성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 논란은 공정성 개념이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 공정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윤리성, 이데올로기성, 균형성, 중립성 등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개념임.
  - ▷ 그런데 기존의 공정성 논의는 각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정성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화 작업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방송 제작 현실이나 사회상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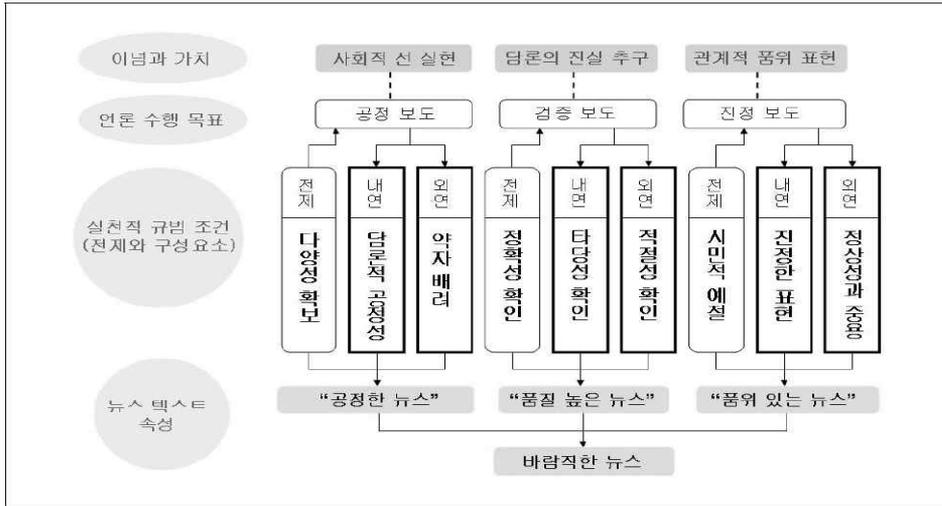
- ▷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내재한 쟁점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평가적 가치로 공정성 개념을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
- 다차원적인 공정성 개념의 속성으로 인해 특정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맥락적 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 유종원(1995)은 보도의 공정성 개념은 공정성 그 자체 또는 공정성을 구성하는 몇 가지의 하위 개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 그는 공정성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과 현실 사이의 심층적인 의미간의 연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언론, 단순한 관찰자와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배심원형 언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을 필요로 하는 단독 판사형 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음.
  - ▷ 이 같은 유종원의 지적은 공정성이란 우리 사회가 언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으로 언론이 역할 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경기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고, 합의된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 개입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 언론의 민주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정성 개념이 오히려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정성 개념은 언론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념임.
  - ▷ 최영재·홍성구(2004)는 언론자유와 언론의 공정성 개념은 상충할 수 있다면서, 언론의 공정성을 '민주사회 내부에서 관용 가능한 언론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민의 자율적 합의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규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 이들은 언론의 공정성을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자유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구성

되는 개념이라고 봄.

- ▷ 이들은 언론의 공정성의 구체적 운영원리로 언론자유의 우선성, 관용의 중요성,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정한 가치를 제시했음.
  - ▷ 이들의 논의는 언론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공정성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언론자유가 언론 공정성에 우선하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 상충을 인정하는 동시에 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합의 가능한 정의로운 가치로서 언론의 공정성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임.
- 공정성은 언론의 민주적 역할을 위해 필요한 다양성 확보의 전제로써 필요한 개념임.
- ▷ 문종대(2004)는 매체별로 이념적 시장 분화가 발생한 경우, 이념을 달리하는 매체 간에는 공정성 시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공정성 개념으로 언론 내용을 분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음.
  - ▷ 그래서 그는 가치 간의 갈등을 용인하면서 제도나 절차적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새로운 공정성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 즉 공정한 언론은 자유로운 언론임으로 자율성에 기반을 둔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이 자율적일 수 있는 조건에 주목할 뿐이지 언론 보도내용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앞선 논의들이 총론 차원에서 공정성의 개념화에 주목한 것이라면, 다음의 공정성 개념들은 한국 사회 언론의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각론 차원의 개념임.
- 공정성은 단순한 양적 균형을 넘어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는 개념이며, 산술적(소극적) 중립성이 아니라 적극적 중립성을 내포한 개념임.
- ▷ 강태영(2004)은 보도의 공정성이란 단순히 양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불편부당한 보

- 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함.
- ▷ 김승수(2004)는 우리 사회가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공정 보도가 선이고, 불공정 보도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빠져버리거나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다룰 때 단순한 산술적 균형, 또는 중립 보도의 논의로 격하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정성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음.
  - ▷ 그는 공정성을 규율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념, 본질, 수단, 실천기준을 갖춘다면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정당성을 확보한 언론은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함.
  - ▷ 따라서 진실과 정의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을 찬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라고 봄.
  - ▷ 즉, 공정성의 개념은 특정한 뉴스의 항목에 접근한 때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균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만, 진실에 도달할 때에는 진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주장을 비판하는 적극적 중립성을 요구함(이민웅, 2004).
- 공정성은 기계적 공정성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공정성의 중요한 기준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데올로기성이 중심되어야 함.
- ▷ 원용진 외(2008)는 어떠한 사회적 맥락(상황)에서 사실성, 윤리성, 이데올로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봄.
  - ▷ 그러면서도 그는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검증이 한국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가진 사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주목했음. 특히 한국은 오랫동안 권위적 정부가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를 검열하고 통제해 왔기 때문에 다른 범주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뉴스의 공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게 되었다고 주장함.

-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개념은 약자를 배려하는 신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 이준웅·김경모(2008)는 다음 [그림 2]에 제시된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 모형’에서 언론 수행목표 중 하나로 공정 보도를 설정하였음.



출처 : 이준웅·김경모(2008), 26쪽.

[그림 2]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 모형

- ▷ 나아가 그들은 공정 보도의 전제 가치로 다양성 확보를, 내연적 가치로 담론적 공정성을, 외연적 가치로 약자 배려를 제시함.
- ▷ 그들은 다양성 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나 개별 기사에 대한 평가 기준에 주목할 경우, 다양성은 관점, 의견, 주장의 다양성과 정보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관점, 의견, 주장이 전개되어야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들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 ▷ 또한 그들은 담론적 공정성은 담론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대상의 목소리가 그 담론의 구성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공정성은 다차원적 개념들을 충족할 때 완성되는 다차원적 다원적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 ▷ 김영욱(2008)은 언론의 공정성 개념을 객관성과 균형성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그는 저널리즘의 객관성을 안정적으로 진실성 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모든 언론인과 언론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았고, 균형성은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로 모든 언론사에게 강요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보았음.
  - ▷ 그런 면에서 워드(Ward, 2015)의 저널리즘의 객관성 개념을 차용하여 언론의 공정성은 특정한 조건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함.
  - ▷ 워드가 주장하는 특정한 조건은 사실성(기사는 정확하고, 입증된 사실에 기초), 공평성(논쟁적 이슈에 대하여 각각 견해를 공평하게 제시), 비편향성(감정, 주관적 요인이 내용을 왜곡하지 않음), 독립성(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보도), 비해석적(보도자의 주관적 견해, 해석을 덧붙이지 않음), 중립성(논쟁적 이슈에서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음) 등임.
  
- 현재 방송심의규정에 명시된 공정성 개념은 이와 같이 다차원적 다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봄.
  - ▷ 방송심의규정에 규정된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제9조 ‘공정성’, 제 10조 ‘사실 보도와 해설의 구별’,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개념으로 다차원적인 공정성 개념을 취함.
  - ▷ 위에서 논의된 공정성 개념들이 내포한 다차원적인 개념들-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다양성, 중립성,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개념으로 봄.

- ▷ 따라서 이러한 다차원적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차원을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 품질,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진행자의 신뢰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 척도를 개발할 것임.

## 2) 종합편성채널 보도 프로그램 선행연구

- 조은영·유세경(2014)은 지상파방송의 다양성과 종합편성채널의 다양성의 차이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함.
  - ▷ 그들은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따른 방송 뉴스의 보도 다양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으로 보도의 보수성을 비판받는 파업에 대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태도를 분석함.
  - ▷ 실제 분석은 2013년 12월에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각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 분석 결과 보도의 대주제 다양성은 지상파방송이 종합편성채널보다 높게 나타났고, 소주제 다양성은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방송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혀냄.
  - ▷ 보도 관점의 다양성을 보면 진행자/기자 태도의 다양성은 종합편성채널이 높게 나타났고, 취재원 태도의 다양성은 지상파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혀냄.
  - ▷ 보도 주제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 결과, JTBC가 여타 방송에 비해 불법파업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보도 비율이 낮았고,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보도 비율이 높았음을 밝혀냄.
  - ▷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이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방송의 보도 관점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다양성을 증가시켰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임.

- 유수정(2018)은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메인 뉴스의 구성과 다양성 변화를 분석함.

<표 2> 철도노조파업보도의 진행자/기자 및 취재원 태도별 보도 관점 스펙트럼

	← 파업비판			중립		파업 지지⇒		
	1-1.5	1.5-2	2-2.5	2.5-3	3-3.5	3.5-4	4.4.5	4.5-5
철도노조파업 보도에 대한 진행자/기자의 태도	TV 조선	채널A	KBS MBC SBS MBN		JTBC			
철도노조파업 보도에 대한 취재원 태도		TV 조선	SBS MBN 채널A	KBS MBC	JTBC			

출처 : 조은영·유세경(2014), 451쪽 ; 453쪽 재구성.

- ▷ 그는 지상파방송 3사와 함께 4개 종합편성채널의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설립 초기 4년 동안의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뉴스 구성의 다양성을 분석함.
- ▷ 분석 결과, 개국초기에 종합편성채널들은 지상파방송과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2년 4분기 대통령선거 기간부터 선거 관련 정치 기사를 집중 보도하면서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 시기에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은 두 배 이상 상승했음을 발견함.
- ▷ MBN은 종합편성채널들과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함. MBN은 다른 종합편성채널들보다 정치 관련 뉴스 보다 경제 관련 뉴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터뷰 및 대담 보도는 적었음.
- ▷ 인터뷰 및 대담을 활용하는 보도의 주제별 분류를 보면, 종합편성채널들은 정부 및 정당 관련 보도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69.6%, MBN이 59.5%, 채널A가

50.4%로 50% 이상을 차지했고, JTBC는 33.5%로 다른 채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및 정당 관련 뉴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를 종합해 보면 종합편성채널들은 개국 초기에는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포맷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낮은 시청률 문제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정치 관련 뉴스에 집중하는 보도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 강명현(2016)은 KBS와 SBS, TV조선과 JTBC의 메인 뉴스를 분석하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내용적 차이와 형식적 차이를 밝히고자 연구를 진행함.

- ▷ 분석 결과, 뉴스 주제의 다양성은 KBS가 가장 높았고, SBS가 JTBC에 비해 다양성이 약간 높았고, TV조선의 다양성이 가장 부족했다고 결론 지음.
- ▷ 취재원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에서 전문가 등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개별 뉴스 아이템 시간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 더 길게 나타났으며, 그래픽 사용의 경우 TV조선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음.
- ▷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는 JTBC는 뉴스 주제의 다양성, 취재원 운영, 뉴스 아이템 평균 시간 등에서 지상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TV조선은 정치 관련 뉴스 아이템에 집중하면서 전문가 집단을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TV조선이 기존 지상파 뉴스 형식과는 다른 뉴스 포맷을 구성하면서, 뉴스 소재의 다양성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 유수정·이건호(2017)는 종합편성채널의 논조 차별성을 알아보기 위해, 4개 종합편성채널의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상복지 이슈’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함.

- ▷ 분석 결과, 그는 전체적으로 TV조선과 채널A가 무상복지에 대해 반대하는 논조가 강했고, MBN은 중립적이었던 반면, JTBC는 긍정적 논조가 강했다고 평가했음.
- ▷ 시기의 변화에 따른 진행자와 기자의 논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 2012년 대비 2015년에 채널A와 TV조선의 무상복지 반대 논조가 조금 완화되었고, JTBC와 MBN의 논조도 무상복지 찬성 쪽으로 더욱 이전하였음을 밝혀냄.
- ▷ 취재원들의 논조는 2012년에 모든 채널은 중립적 입장이 강했고, 2015년에는 채널A와 MBN가 2012년에 비해 좀 더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였음.
  - ▷ 전체적으로 종합편성채널들이 논조의 다양성이 있음을 밝혀냈음.
- 양선희(2017)는 TV뉴스 진행자의 새로운 역할 부여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진행자 스타일을 분석함.
- ▷ 그는 KBS와 SBS, JTBC와 MBN의 메인 뉴스 진행자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함.
  - ▷ 분석 결과, JTBC는 뉴스 편집과 해설 그리고 관점 부여 방식이 미국식 진행자 시스템을 따라고 있었으며, MBN도 제한적이지만 해석형 멘트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냈음.
  - ▷ 하지만 지상파방송은 리드 부분에서만 제한적 설명이 제시되는 영국식 진행자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밝혀 냄.
  - ▷ 그는 스타성이 부각된 JTBC와 MBN의 진행자 운영방식이 방송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했다고 평가했음.
- 한수연·윤석민(2016)은 종합편성채널 등장이 지상파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함.
- ▷ 그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상파방송 뉴스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상파방송 뉴스를 분석하여 형식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
  - ▷ 분석 결과, 지상파 메인 뉴스의 뉴스 아이템 수가 감소하였고, 아이템당 보도 시간은 약간 늘어났으며, 취재원 수와 사운드바이트 길이도 늘어났음을 밝혀냄.
  - ▷ 반면 심층성이 감소되었으나 뉴스 소재의 연성화와 진행자의 의견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음.

- ▷ 그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뉴스 아이템 길이의 증가가 심층성을 담보할 정도로 길게 증가하지 않았고, 종합편성채널에서 나타나는 진행자의 주관적 개입 역시 지상파방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음.

### 3) 종합편성채널의 선거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 연구는 선거보도에 대한 분석(원희영·윤석민, 2015 ; 이승엽·양기문·이상우, 2017 ; 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6)과 대통령 탄핵보도에 대한 분석(유용민 ; 2018)을 통해 실시됨.
- 원희영·윤석민(2015)는 2012년 12월에 실시된 18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분석함.
  - ▷ 4개 종합편성채널과 SBS 메인 뉴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도 건수에서 SBS는 41건, TV조선은 111건, JTBC는 95건, 채널A는 298건, MBN은 208건으로 종합편성채널이 작게는 2배 많게는 7개 이상 선거 관련 보도를 많이 편성하고 있음을 밝혀냄.
  - ▷ 또한 종합편성채널 메인 뉴스 구성 방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SBS는 인터뷰이와 출연자가 등장하지 않는 반면,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인터뷰이와 출연자가 다수 등장하여 기존의 ‘한국 방송 뉴스도식’을 깨고 대담 및 토론형식으로 뉴스가 진행된다고 주장함.
  - ▷ 특히 TV조선은 다른 종합편성채널들보다 많은 선거 관련 뉴스의 30%가 인터뷰이 및 출연자 논평이 담긴 형식으로 구성했는데(원희영·윤석민, 2015, 130-131쪽), JTBC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인사들이 균형을 맞춰 출연되었지만, TV조선과 채널A, MBN은 새누리당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함.
  - ▷ 또한 취재원 발언 내용을 분석한 결과, SBS를 포함해서 모든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주관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음.
  - ▷ 이들 결과를 종합해서 그는 TV조선, 채널A의 경우 진행자, 진행

자, 기자, 인터뷰이,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 불공정성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함.

- 이승엽·양기문·이상우(2017)는 2014년 지방선거 뉴스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 그들은 지방선거 기간에 지상파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메인 뉴스를 분석함.
  - ▷ 분석 결과, 그는 보도량에서는 채널A(종합뉴스)와 TV조선(뉴스쇼판)이 일평균 30건 이상으로 여타 방송사에 비해 거의 10건 가까이 선거 관련 보도가 많았고, KBS 1TV(뉴스 9)의 경우 1일 15.93건으로 가장 적었음을 밝혀냈음.
  - ▷ 선거 보도의 물리적 편향성을 분석한 그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모두에서 물리적 편향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음.
  - ▷ 보도 주제의 편향성과 관련해서 그는 MBC와 SBS가 새누리당에 편향된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았음을 밝혔음.
  - ▷ 논조 측면에서는 MBC와 TV조선은 새누리당에 편향된 보도를 행했음을 밝혔음
  - ▷ 그는 종합적 평가로 JTBC를 제외하고 3개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독립적 보도 비율이 낮은 반면, 특정 정당 선호를 표시하는 보도가 많았으며,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선거 보도의 독립성에서 심한 편향성을 보였다고 결론 지음.
  
- 이종혁·정낙원·김세은(2016)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선거보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 2016년 4월에 실시된 20대 총선을 다룬 지상파방송 3사, 4개 종합편성채널의 메인 뉴스를 분석함.
  - ▷ 분석 결과, 보도 건수에서는 지상파 3사가 181건부터 209건으로 편차가 적은 반면, 4개 종합편성채널들은 376건에서 514건으로 보도 건수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음.
  - ▷ TV조선이 가장 많이 보도했고, JTBC(27.13%), KBS(20.20%),

- SBS(15.79%)는 해설보도 형식에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 ▷ 지상파방송 3사는 논평을 거의 하지 않는 반면, 조선TV는 전체 보도의 8.56%를 논평 보도하고 있음을 밝혀냈음.
  - ▷ 뉴스 형식에서 JTBC는 진행자 낭독과 진행자가 기자와 취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음.
  - ▷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그는 TV조선과 채널A가 새누리당의 주장 프레임을 많이 보도하면서 편파성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평가함.
  - ▷ 취재원 운영 등에서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보도 형식적 차원의 다양성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지었음.
- 유용민(2018)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상파방송 3사와 4개 종합편성채널의 메인 뉴스 보도에 대해 취재원을 분석함.
- ▷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된 시점부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3월 말까지의 관련 보도를 분석함.
  - ▷ 분석 결과, 그는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 건수는 JTBC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TV조선, MBC 순이었으며, KBS가 129건으로 가장 적었다고 결론지음.
  - ▷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간에 특별한 경향성이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취재원 태도 분석 결과 역시 방송사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중립적인 취재원 비율이 높았고,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 간의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고 결론지음.
  - ▷ 그는 결론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 모두 기계적 중립성을 의식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함.
-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한 결과, 지상파방송

과 종합편성채널 간에는 차이가 있었고, 종합편성채널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음.

- ▷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TV조선, 채널A, MBN은 새누리당 편향적 보도 형태를 보인 반면, JTBC는 균형잡힌 여야 보도를 함(원희영·윤석민, 2015).
  - ▷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도 주제 분석 결과, MBC와 SBS는 새누리당에 편향되었고, 논조에서 MBC와 TV조선이 새누리당 편향성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물리적 편향성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 기존 선거보도에 비해 편향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이승엽·양기문·이상우, 2017).
  - ▷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보도에서는 취재원 운영과 보도형식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TV조선과 채널A가 새누리당의 주장을 보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편파성을 보였다는 지적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함(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6).
  - ▷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편파성이 크게 개선됨.
  - ▷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편파성이 드러나지 않았음(유용민, 2018).
- 종합편성채널의 메인 뉴스들은 초기에는 편파성을 심각하게 드러냈지만, TV조선과 채널A 등이 편파성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는 있지만, 선거나 탄핵 등과 같이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편파성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음.

#### 4)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 초기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현저한 특징은 시사평론 혹은 시사 토크쇼로 지칭되는 정치 소재 중심의 토크 프로그램이 집중 편성되었다는 점임. 그리고 이들 시사 프로그램들은 공정성, 품의 등에서 비판받았다는 점임(이정훈·이상기, 2016 ; 이향선, 2017.10).

- ▷ 프로그램 형식 면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은 지상파방송의 시사 프로그램과 다른 형태를 보임.
  - ▷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은 사회자와 출연자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개인적인 사담 형태로 막말을 포함한 정치 비평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결국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은 편파성, 공정성, 그리고 품위의 문제로 집중 비판받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서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부류임.
  - ▷ 정치평론가와 해설가들로 구성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들은 선정적이고 감성적인 자극 형태로 표출되면서 보수정당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 종합편성채널 도입 초기 채널A의 <쾌도난마> TV조선의 <시사탱크>가 다수의 연구 대상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비판 받음(구교태, 2016 ;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 유경환·설훈·김경모, 2016 ; 이영주, 2016).
- 종합편성채널의 토크 중심의 시사 프로그램은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공식적 명칭을 부여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음.
- ▷ 시사 대담(류동협·홍성일, 2013 ; 손화정·이영주, 2019 ; 유경환·설훈·김경모, 2016), 시사 프로그램(구교태, 2016), 시사토론 프로그램(이기형, 2014 ; 이향선, 2017.10), 시사 토크쇼(금희조·조재호, 2015 ;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 송승호·김동규, 2018 ; 이영주, 2016), 정치 시사 토크쇼(이정훈·이상기, 2016), 정치 예능 토크쇼(정은교·금희조, 2014), 정치 예능(김정렴·전종우, 2017), 정치 엔터테인먼트(오은정·민영, 2015), 정치 엔터테인먼트 시사 토크쇼(권오주·민영, 2015)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토크쇼 연구들은 두 가지 형태에서 연구되고 있음.
- ▷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

은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인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에 대한 평가를 한 연구(류동협·홍성일, 2013; 이기형, 2014; 이정훈·이상기, 2016)와 특정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한 연구(구교태, 2016; 김영빈·한혜경, 2018;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유경환·설훈·김경모, 2016)로 구분됨.

- 류동협·홍성일(2013)은 기존 연구와 선거보도심의 결과와 방송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평가함.
  - ▷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집중 편성되어,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정치적 영향력, 충성 시청자층을 확보한 종합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의미있는 프로그램 형식이라고 평가함.
  - ▷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도입 초기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보수 색채의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연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은 더욱 강하게 보수적 색채를 드러냄.
  - ▷ 이들 연구자들은 “2012년 선거 국면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행태는 정파적이었고 주창적이었다”라고 평가했음(27쪽).
  - ▷ 기존의 지상파방송 시사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취재한 정치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전문가들은 취재원이나 정보원으로 기능했다면,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평론 프로그램은 정치평론가 및 시사평론가의 해설과 평론이 핵심이 됨.
  - ▷ 이기형(2014)은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종편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파적이고, 여권 편향적이며, 거칠고 감성적인 발화자로서 거친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이정훈·이상기(2016)는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 구현이 민주주의 위기와 연결된다는 이론적 논의를 제시했음.
  - ▷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

- 시사 토크쇼 발언 내용에 대해 비판적 논지를 피력함.
- ▷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발언 내용이 야당 및 야권 정치인 그리고 종북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선정적 보도 방식이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가상적 정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함.
  - ▷ 또한, 가상적 정치참여는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정치적 배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결론 내림.
- 박지영·김예란·손병우(2014)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토크쇼’가 구성하는 담론적 특징과 감성 구성방식이 발생시키는 이념적 의미를 분석함.
- ▷ 이들은 채널A의 <쾌도난마>가 2013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7회 동안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다룬 프로그램을 분석함.
  - ▷ 분석 결과, 그들은 종편 시사토크 쇼는 전통적인 사회자와 대담자의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공적인 담화 양식이 아닌 개인적인 사담의 방식으로 논증적 합리적 대화보다는 감성적인 대화로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감성적 대화 방식은 사회자-대담자-시청자를 감성적 고리로 연결시키면서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국가 위기 사항으로 규정지으면서, 논란을 야기한 좌파진영을 문제세력으로, 우파진영을 우국지사로 하여 감성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했음.
  - ▷ 이들은 이와 같은 감성 대결구도의 담화구조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이끄는 감성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함.
- 구교태(2016)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활용된 자막의 특성을 분석함.
- ▷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쾌도난마>의 자막을 분석한 결과, 411분 동안 779회의 빈번한 자막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함. 그리고 이들 자막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으며 정파적으로 불공정하였음을 밝혀냄.

- 유경환·설훈·김경모(2016)는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분석함.
  - ▷ TV조선 <시사 탱크>, 채널A의 <쾌도난마>, MBN의 <뉴스와이드>를 공식선거운동 이전과 공식선거운동 기간으로 나눠 분석함.
  - ▷ 선거운동 이전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한 부정적인 프로파간다가 많았으나,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정적 프로파간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여당보다 야당에 대한 부정적 프로파간다가 많이 노출됨.
  - ▷ 이들 프로그램은 합리적인 논증보다는 비논리적 발화와 약식논증으로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내용이 많았음을 밝혀냄.
  
- 김영빈·한혜경(2018)은 5차(2016.9.9)와 6차(2017.9.3) 북한 핵실험 시기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JTBC의 <정치부 회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행함.
  - ▷ 분석 결과 그들은 <이것이 정치다>는 <정치부 회의>에 비해 계층 분화 형식의 담론 구성을 함으로써, 사회적 민주주의 질서 형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 상대적으로 <정치부 회의>는 기능 분화 형식의 담론 형성으로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경쟁하는 수평적 구조가 강조됨으로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함.
  
-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토크쇼는 지상파방송의 기존 시사 프로그램과 달리 등장하는 패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는 속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음.
  - ▷ 이들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들은 패널들을 평론가, 출연자, 정치 평론가, 시사평론가, 패널, 인터뷰이, 대담자, 정치 매개 엘리트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음.
  
- 이영주(2016)는 패널들의 기능을 분석하여 편향성을 비판함.
  - ▷ TV조선 <시사 탱크>, 채널A의 <쾌도난마>, MBN의 <뉴스와이드>,

- JTBC의 <정치부회의> 에 대한 담론분석을 실시함.
- ▷ 그는 출연자들이 현실정치와 미디어를 매개하면서 편향성과 직접적으로 정치권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송승호·김동규(2018)의 연구에서는 TV방송 시사토크쇼의 정치평론가 집단의 특성을 분석함.
- ▷ 분석결과 정치평론가 집단은 학력과 경력 측면에서 엘리트 출신과 전문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함.
- 손화정·이영주(2019)는 종합편성채널의 21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패널과 각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의 패널 발언을 분석함.
- ▷ 분석 결과, 그는 패널 직군에는 정치인, 일명 시사평론가, 언론인, 교수, 변호사 등의 비중이 크지만, 교수와 변호사 출신의 패널들은 상대적으로 정파성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함.
- 송승호(2019)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 속성을 분석함.
- ▷ 종합편성채널에 패널 참여 시사 프로그램을 패널저널리즘으로 정의함.
  - ▷ 그는 패널 저널리즘의 특성을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뉴스·시사 프로그램과 다른 측면에서 시청자에게 소구한다고 주장함.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패널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함.
-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패널 저널리즘은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과 다른 속성을 보이며,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에 등장하는 패널들은 언론인,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군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집단이고, 이들은 정치적 주장성이 매우 강하며 현실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 ▷ 종합편성 채널의 메인 뉴스 등의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중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편향성이 초기에 비해 매우 줄어들고 일부 채널에서 지적이 되는 정도이지만, 시사 토크쇼의 경우 JTBC를 제외한 여타 채널에서는 편향성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IV.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 방법

---



## IV.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 방법

### 1. 평가 척도 개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뉴스나 아이탬에 대한 방

송심의 결과를 취합하여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침.

- ▷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왜냐하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사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제작환경이나 상황 등 다양한 요인 고려되어 평가되어 제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임.
-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탐색해 본 결과 규제체계와 유사하게 대부분 연구는 특정 상황이나 이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 ▷ 다른 채널이 이미 수행한 연구를 참조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 설문 척도 개발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중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관련있는 규정들을 설문 문항으로 설정하였음.

- ▷ 응답의 용이성을 위해 각 항목은 유사한 사위개념을 묶어 응답의 효율성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 항목은 크게 ①공정성, ②다양성 ③공익성 ④사회적 책임(사회안전) ⑤사회적 기능(정보성)으로 7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다른 채널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항목의 대표문항을 1개씩 추출하여 구성함.
- 개별 뉴스나 아이템을 대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는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를 취합하여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별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를 검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KI의 설문 항목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점검함.
- 마지막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독특한 형식인 패널이 등장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진행자에 대한 설문 항목,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측정지표는 거의 모든 설문에서 5점 리커트 척도를, 일부 문항에서 명목척도를 사용함.

<표 3> 설문문항과 척도

변인 구분	설문	비고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인구 통계문항
나이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학력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소득	귀택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정치적 성향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합니까?	
지지정당	귀하는 다음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뉴스소비	뉴스 소비경로(3순위)	
프로그램 소비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시청 여부	MBN 뉴스 시사 각 1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시청정도	
공정성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기회와 시간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p>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p> <p>찬반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p> <p>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p> <p>찬반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한다.</p>	
다양성	<p>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p> <p>사회의 주요 쟁점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p> <p>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p> <p>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p> <p>다양한 의견,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p> <p>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p>	
공익성	<p>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p> <p>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p> <p>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p> <p>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p> <p>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p>	
사회적 책임 (사회안전)	<p>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p> <p>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p> <p>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p> <p>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p> <p>사형심을 조장하지 않는다</p> <p>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p> <p>아동/청소년의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p> <p>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등)</p>	
사회적 기능 (정보성)	<p>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p> <p>소득/성별/세대/지역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p> <p>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p> <p>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p>	
품질평가	<p>품질이 우수하다</p> <p>만족한다</p> <p>다른 사람에게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p> <p>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p>	
진행자 평가	<p>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p> <p>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p> <p>진행자에게 신뢰감을 느낀다</p> <p>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p> <p>진행자가 시청자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p> <p>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p> <p>진행자의 정보전달에 설득력이 있다</p> <p>진행자가 카리스마가 있다.</p>	
타채널 평가	<p>사안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p> <p>다양한 의견,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p> <p>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p> <p>사회와 가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p> <p>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p> <p>품질이 우수하다</p>	MBC TV조선 뉴스/시사 전체 평가
패널 프로그램 평가	<p>패널이 이슈를 쉽게 설명한다</p> <p>패널간에 이루어지는 토론이 좋다</p> <p>주요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p> <p>패널과 진행자의 호흡이 좋다</p> <p>중요한 이슈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p> <p>현재 일어나는 전반적인 이슈와 사건을 알게 된다.</p> <p>다양한 의견,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p> <p>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p> <p>사안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p>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 전체 평가

## 2.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

### ○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

- ▷ MBN 채널에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으로 8개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되어 있음,
- ▷ 그 외 30분 이내의 단신 뉴스 프로그램들과 특보 프로그램들이 편성됨.
- ▷ 따라서 본 연구는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평가하기 목적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MBN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조사대상으로 삼음.
- ▷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응답 피로도에 의한 응답률 저하로 인한 조사 신뢰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그룹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4> 조사대상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명	방송 횟수	방송 요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방영 길이	가구 시청률(%)
뉴스	MBN종합뉴스	365	월-일	19:22:17	20:16:29	0:54:13	3.28
	굿모닝MBN	253	월-금	6:58:58	7:45:20	0:46:23	0.83
	MBN뉴스와이드 주말	105	토-일	8:40:54	9:46:16	1:05:23	2.48
시사 보도	아침앤매일경제	306	월-토	8:20:47	9:25:31	1:04:45	2.31
	MBN뉴스와이드	267	월-금	17:37:43	18:45:44	1:08:01	2.87
	뉴스파이터	244	월-금	16:40:11	17:51:03	1:10:53	3.74
	시사스페셜	53	일요일	10:00:57	10:57:45	0:56:49	1.82
	MBN프레스룸	243	월-금	13:40:04	14:44:09	1:04:06	1.48

출처: 닐슨미디어코리아, 2021년1.1~12.31 가구시청률(전국, 모든 가구 기준)

### ○ 응답자 프로그램 선택 기준

- ▷ 위의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MBN 채널에 편성된 대상 프로그램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먼저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자주 시청하는 프

로그래를 선정하게 함.

- ▷ 그렇게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설문함.
- ▷ 이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으로 응답자가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당 최소 50명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선택 문항을 미리 설정하였음.

Q2. 다음 MBN '시사 프로그램들' 중에서 귀하가 가장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Q2\_1. 귀하께서는 선택하신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 ① 매일
- ② 매주 4~5회
- ③ 매주 2~3회 정도
- ④ 매주 1회 정도
- ⑤ 2주에 1회 정도(격주간)
- ⑥ 매월 1회 정도(월간)

[그림 3] 프로그램 선택과정

### 3. 조사 방법 및 대상

#### ○ 조사 방법

- ▷ 본 조사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 설문조사는 매출액 규모로 국내 3위인 전문조사회사 (주)메트릭스가 담당했으며,
- ▷ 조사 기간은 2021년 12월 6일에서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수행함.
- ▷ 표집 방식은 전국 시도별 인구비례와 성별에 따른 할당 방식으로 배분하였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임.

<표 5> 응답자 속성

구분		사례수(1,000)	구성비(%)
성별	남자	512	51.2
	여자	488	48.8
연령	19~29세	194	19.4
	30대	178	17.8
	40대	215	21.5
	50대	225	22.5
	60대	188	18.8
지역(권역)	서울	192	19.2
	경기/인천	325	32.5
	충청권	105	10.5
	호남권	104	10.4
	동북권	124	12.4
	동남권	150	15.0
직업	화이트 칼라	408	40.8
	블루칼라	80	8.0
	자영업자	131	13.1
	가정주부	148	14.8
	학생	67	6.7
	군인/무직/기타	167	16.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7	3.7
	고등학교 졸업	286	28.6
	대학교 졸업	616	61.6
	대학원 졸업	61	6.1
소득	200만미만	111	11.1
	200~400만원 미만	367	36.7
	400~600만원 미만	286	28.6
	600만원 이상	235	23.5
정치적 성향	보수	70	7.0
	중도보수	174	17.4
	중도	487	48.7
	중도진보	209	20.9
	진보	60	6.0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291	29.1
	국민의힘	209	20.9
	정의당	42	4.2
	국민의당	47	4.7
	기타	24	2.4
	없음	388	38.8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V. 조사 결과

---



## V. 조사 결과

### 1. 뉴스 접촉 플랫폼 경로

- 수용자들의 뉴스 접촉 플랫폼은 지상파방송, 포털사이트,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등의 순으로 것으로 나타남
  - ▷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를 접촉한 경로’를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설문하였음.
  - ▷ 분석 결과,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자들이 뉴스를 수용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플랫폼은 지상파방송이었고, 다음은 포털사이트,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종합편성채널로 조사됨.

<표 6> 한 달간 뉴스 획득 경로

뉴스 획득 경로	1순위(A)	2순위(B)	3순위(C)	합계 (A+B+C)	가중합계 (3A+2B+C)
지상파방송	377	247	166	790	1,790.13
포털 사이트	255	202	232	690	1,403.37
종합편성채널	146	274	235	656	1,222.19
YouTube 채널	111	127	153	392	741.43
SNS 사이트	37	79	107	223	377.15
종이신문	51	22	51	124	248.80
언론사 홈페이지	19	48	50	117	203.69
기타	2	1	6	9	13.24
합계	1,000	1,000	1,000	3,000	6,000.00

- ▷ 이는 수용자들이 종합편성채널을 중요한 뉴스 획득 경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 간의 뉴스 접촉 플랫폼에 차이가 있음.

- ▷ 1순위 응답에서 30대와 40대 시청자들은 포털사이트를, 20대와 50대 이상의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을 통해 뉴스를 획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 2순위에서는 20대 시청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종합편성채널을 선택하였음.

<표 7>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뉴스획득 경로 조사 결과

구분	종이신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언론사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YouTube 채널	기타	
1순위	19~29세	11	66	20	3	46	18	30	0
	30대	14	52	20	5	55	8	22	1
	40대	7	72	28	5	77	5	22	1
	50대	8	105	33	4	48	3	24	0
	60대	10	82	46	3	30	4	13	0
	전체	50	377	147	20	256	38	111	2
2순위	19~29세	4	36	38	14	39	34	30	0
	30대	3	44	48	4	39	14	26	1
	40대	1	60	56	11	42	15	30	0
	50대	5	55	76	9	46	7	25	0
	60대	10	51	56	10	37	8	16	0
	전체	23	246	274	48	203	78	127	1
3순위	19~29세	9	28	38	13	35	34	37	0
	30대	10	32	43	12	38	16	26	1
	40대	9	43	60	10	48	19	26	1
	50대	11	38	49	6	62	22	36	2
	60대	12	25	45	9	50	16	29	2
	전체	51	166	235	50	233	107	154	6

- ▷ 3순위에서도 50대와 60대 시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종합편성채널을 선택하였음.

- 종합편성채널이 수용자들에게 뉴스를 접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만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의 필요성이 요구됨.
  - ▷ 종합편성채널이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편성채널들의 저널리즘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따라서 종합편성채널의 저널리즘을 담당하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책임-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 품질-을 살펴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2. 뉴스 프로그램 평가 결과

-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중에서 <MBN 종합뉴스>를 가장 즐겨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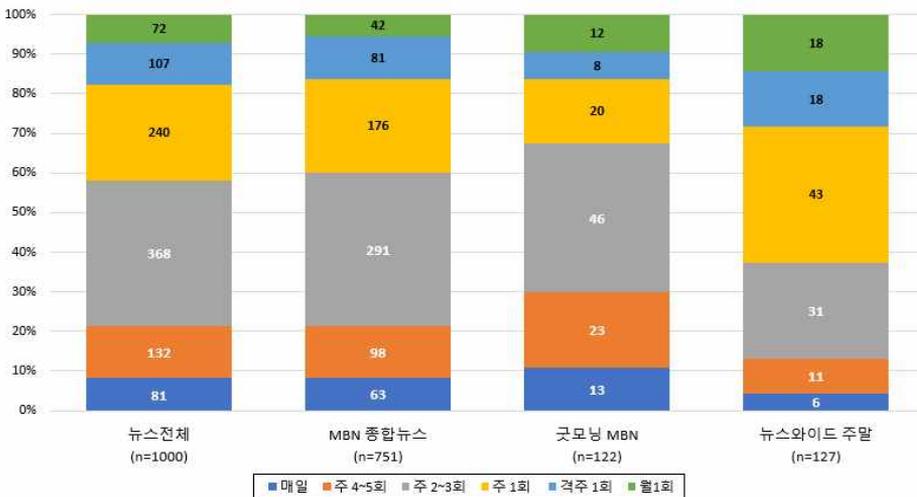


[그림 4]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

- ▷ MBN에 편성된 뉴스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위의 <그림 4>와 같이 <MBN종합뉴스>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뉴스와이드(주말)>와

<굿모닝MBN> 등의 순으로 조사됨.

- MBN채널 자체에 대한 시청자 충성도와 개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충성도를 알아볼 목적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이 주로 시청한다고 선택한 뉴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문함.
- ▷ 그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이 시청자들은 전체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정도는 시청자의 80% 정도가 MBN의 뉴스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시청한다고 응답함.
- ▷ 매일 또는 주 4회 내지 5회 이상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개별 뉴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20%에서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 뉴스 프로그램 시청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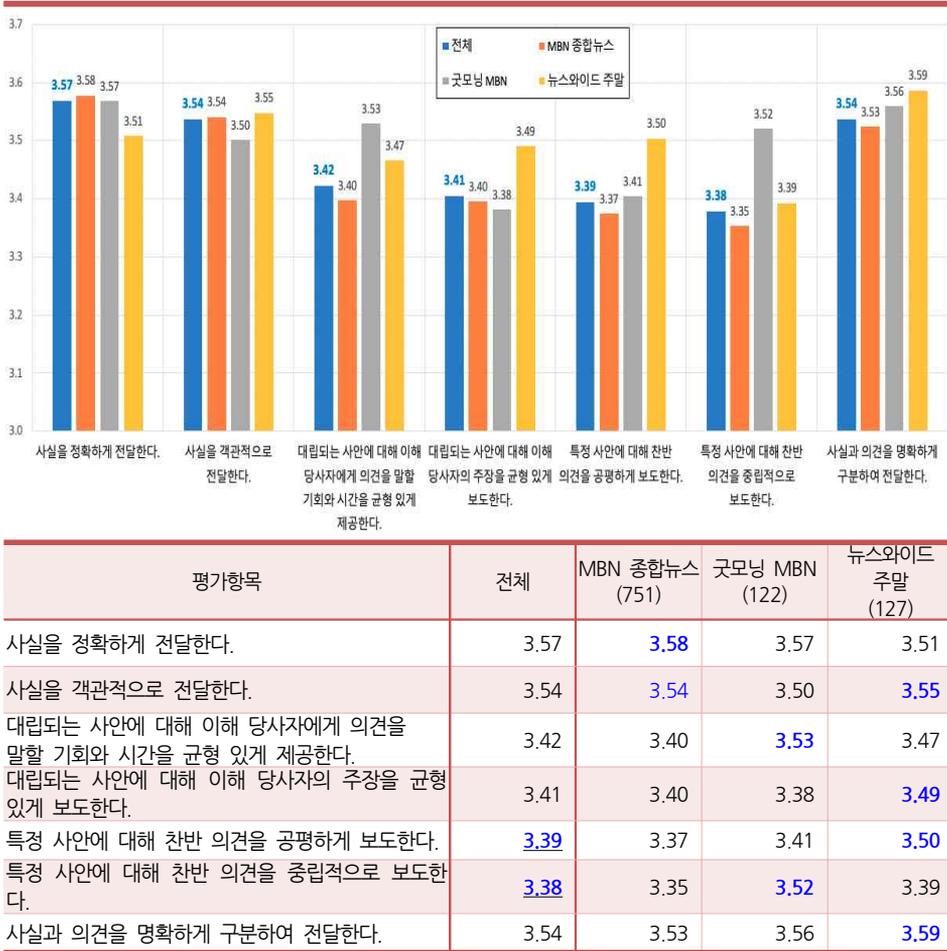
- ▷ 이 같은 결과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충성도가 높으며, 습관적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 ▷ <뉴스와이드 주말>이 다른 2개의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 빈도가 낮은 것은 주말에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1) 공정성 평가 결과

### (1) 프로그램별 공정성 평가

-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항목으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을 평가한 결과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높은 평가를 받음.
  - ▷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7개 항목 모두에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높은 평가를 받음.
  - ▷ 구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등의 항목에서 평균 3.5점 이상의 평가를 받음.
  - ▷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항목과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한다’는 항목에서도 평균 3.3 이상의 평가를 받음.
  
-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7개 항목의 공정성 평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같은 항목의 공정성 평가 척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3.38점에서 3.59점 수준으로 공정하다고 평가함.
  - ▷ MBN의 뉴스 프로그램별로 동일한 공정성 평가 척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 ▷ 분석 결과, MBN 뉴스 프로그램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 동일한 척도에 있어서 특정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공정성 평가항목들도 존재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공정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함.

<표 8>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조사 결과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정성 평가

-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의 공정성 평가항목 대부분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 공정성 평가항목에 대해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 간의

평가지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의 평가에서 20대와 30대 시청자 집단과 60대 이상의 시청자 집단이 40대와 50대 시청자 집단에 비해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약간 높게 평가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 간의 평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 단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는 항목은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는 일원변량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post-hoc)을 실시했는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표 9> 연령별 시청자 집단의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3.56	<b>3.59</b>	3.56	3.51	3.63	n.s.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53	3.58	3.44	3.53	<b>3.63</b>	n.s.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와 시간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3.44	3.44	3.41	3.37	<b>3.45</b>	n.s.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3.44	<b>3.55</b>	3.34	3.31	3.43	f(4,995)=2.652*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	<b>3.55<sup>b</sup></b>	3.45 <sup>ab</sup>	3.32 <sup>ab</sup>	3.24 <sup>a</sup>	3.45 <sup>ab</sup>	f(4,995)=3.099**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b>3.46</b>	<b>3.46</b>	3.32	3.28	3.40	n.s.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b>3.63</b>	3.53	3.46	3.49	3.59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수치는 표본 수

- ▷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는 항목에서는 50대의 평가가 가장 낮고, 20대의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 ▷ 물론 통계적으로 이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항목에서 60대와 20대 시청자 집단은 일관되게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공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반면 40대와 50대, 특히 50대 시청자 집단은 일관되게 낮게 평가함.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정성 평가

- 진보성향의 시청자들보다는 보수성향의 시청자들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함. 특히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옴.
  - ▷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평가항목을 시청자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7개 항목 모두에서 진보와 중도 진보의 평가 점수가 낮고, 보수와 중도보수의 평가가 높게 나옴.
  - ▷ 중도진보 그룹의 평가가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는 항목의 공정성 평가에서 중도진보(m=3.17)가 가장 높고, 보수(m=3.56)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임.
  - ▷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보수성향이 강한 시청자일수록 보다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보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함.
  - ▷ 물론 이러한 응답을 미뤄볼 때 MBN 뉴스 프로그램들이 보다 보수적 편향을 띄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는 추정이 가능함. 또한 보수성향이 강한 시청자일수록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함.

&lt;표 10&gt; 뉴스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향별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b>3.67</b>	3.66	3.59	3.42	3.54	f(4,955)=3.071**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b>3.65</b>	3.61	3.56	3.40	3.46	f(4,955)=2.525*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와 시간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3.41	<b>3.54</b>	3.47	3.27	3.26	f(4,955)=3.603**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3.46	3.41	<b>3.48</b>	3.21	3.41	f(4,955)=4.165**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	<b>3.56<sup>a</sup></b>	3.45 <sup>ab</sup>	3.46 <sup>ab</sup>	3.17 <sup>a</sup>	3.31 <sup>ab</sup>	f(4,955)=5.543**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3.48	3.36	<b>3.49</b>	3.17	3.16	f(4,955)=6.650**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b>3.63</b>	3.57	3.58	3.39	3.50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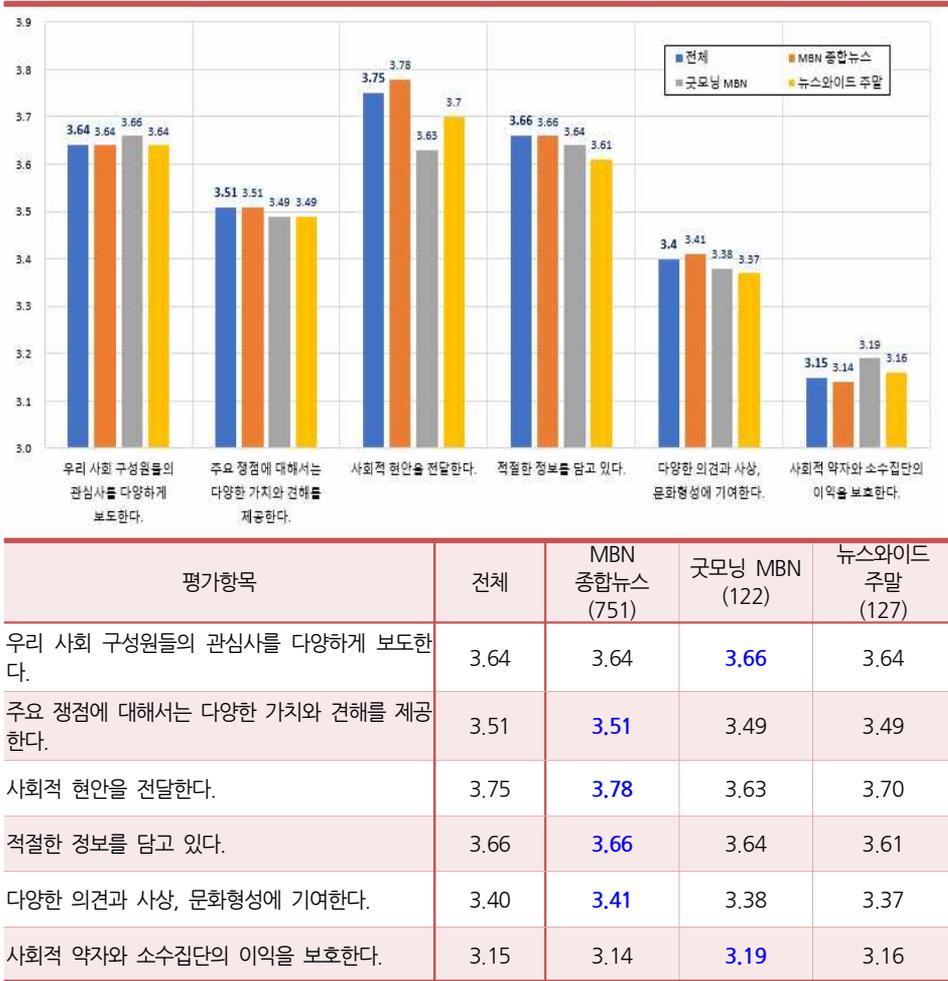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2) 다양성 평가

### (1) 프로그램별 다양성 평가

-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6개의 다양성 평가항목에서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항목은 3.5 이상을 받아 뉴스 사안 선정에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
  - ▷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는 항목(m=3.40)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항목(m=3.15)이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었지만, 이들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뉴스 아이템 선정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시청자들이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음.

<표 11> 뉴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결과



- 시청자들은 MBN의 개별 뉴스 프로그램의 다양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음. 따라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모두는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음.
- ▷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따라 다양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 개별 프로그램 별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도 존재하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는 다양성이 문제된 프로그램은 없으며, 대부분 시청자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다양성 평가

- 연령에 따른 모든 시청자 집단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 간의 평가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양성 평가항목에서 30대와 60대 시청자 집단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20대 시청자 집단은 낮게 평가함. 그러나 검증분석에서 이들 평가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 ▷ 참고로 공정성 평가에서도 60대 이상의 시청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음. 다른 항목들에서도 60대 이상의 시청자 집단은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 집단에 비해 모든 평가 차원-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 품질평가,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등-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50대 시청자 집단은 모든 평가 차원의 측정에서 일관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일관된 측정치들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해 주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이해하고,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12>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	3.57	<b>3.70</b>	<b>3.70</b>	3.61	3.64	n.s.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	3.46	3.57	3.50	3.41	<b>3.61</b>	n.s.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	3.71	3.77	3.73	3.75	<b>3.79</b>	n.s.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3.62	<b>3.68</b>	3.67	3.65	3.66	n.s.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29	<b>3.47</b>	3.42	3.37	<b>3.47</b>	n.s.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10	<b>3.23</b>	3.15	3.08	3.19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다양성 평가

- 보수성향이 강한 시청자일수록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성을 높게 평가함. 반면에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들은 일관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수성향을 가진 시청자 집단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의 시청자 특히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음.
  - ▷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차기와 견해를 제공한다’는 항목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항목에서 중도진보가 가장 낮고, 보수성향의 시청자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lt;표 13&gt;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	3.71	3.66	3.70	3.54	3.67	n.s.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	3.62 <sup>b</sup>	3.56 <sup>ab</sup>	3.60 <sup>ab</sup>	3.27 <sup>a</sup>	3.48 <sup>ab</sup>	f(4,995)=3.886**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	3.75	3.78	3.81	3.63	3.77	n.s.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3.74	3.66	3.66	3.57	3.82	n.s.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42	3.46	3.40	3.24	3.47	f(4,995)=2.715*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31 <sup>b</sup>	3.19 <sup>b</sup>	3.28 <sup>ab</sup>	2.93 <sup>a</sup>	3.04 <sup>ab</sup>	f(4,995)=4.077**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 그런데 위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흥미로운 것은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항목과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는 항목에서는 진보성향의 시청자가 가장 높게 평가함.
- ▷ 공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이 강한 시청자 집단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해 보다 높게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충성도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음.
- ▷ 그러나 특정 항목들에 있어서는 진보성향의 시청자 집단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성향의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산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이 같은 결과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적극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음. 참고로 적극적 중립성은 특정 뉴스 사안에 접근할 때는 기계적 중립성을 갖추고 보도하지만, 특정 뉴스 대상(뉴스 사안)의 진실이 확보되면 그 진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저널리즘적 특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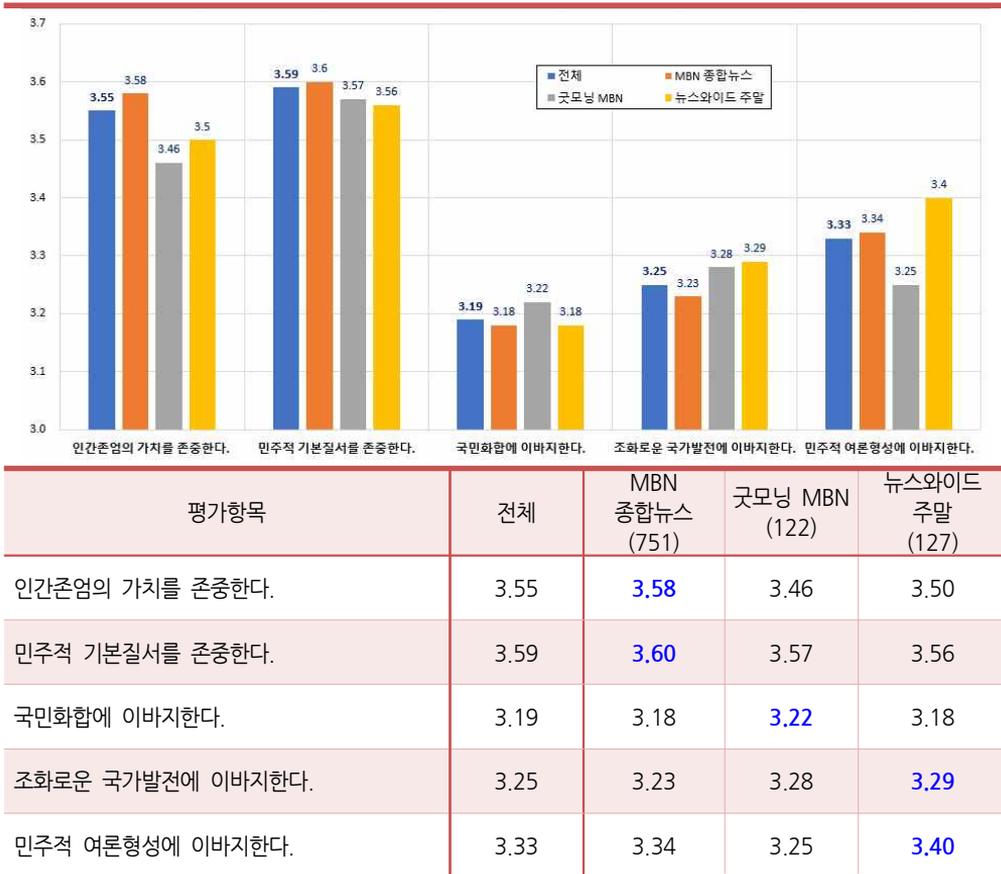
### 3) 공익성 평가

#### (1) 프로그램별 공익성 평가

- 공익성 평가에서도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공익성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본 조사연구는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음.
- ▷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m=3.55)는 항목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m=3.59)는 항목은 높은 평가를 받았음.
- ▷ 반면에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m=3.19)는 항목,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m=3.25)는 항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m=3.33)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 프로그램별로는 전반적으로 <MBN 종합뉴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뉴스와이드 주말>도 ‘국가발전과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에서 높게 평가되었음.
- ▷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항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은 종합편성채널들의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반영된 평가라 할 수 있음. 즉 종합편성채널들의 시사 프로그램이 주로 패널 저널리즘으로 진행되는데, 패널 저널리즘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참여하여 정

치적 사안을 두고 의견대립과 충돌을 보여주는 형식임. 이 같은 프로그램 포맷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의 패널토론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사회가 대립과 분열에 빠졌다고 착각하거나 사회 내 갈등과 대립을 종합편성채널들이 부추킨다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시청자의 MBN 뉴스 프로그램 공익성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표 14>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조사 결과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익성 평가

- 다른 평가 차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익성 평가에서도 60대 이상의 시청자 집단은 높게 평가한 반면, 50대 시청자들은 다른 시청자들에 비해 낮게 평가함.
- ▷ 공익성 평가에 대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50대의 평가가 낮음. 물론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에서는 4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
- ▷ 차이 분석 결과, 연령에 따른 시청자 집단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항목,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항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에 대한 평가치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짐.

<표 15>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	3.57	3.57	3.53	3.50	<b>3.60</b>	n.s.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	3.63	3.64	3.55	3.46	<b>3.70</b>	f(4,995)=2.690*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	3.17	3.18	3.14	3.13	<b>3.33</b>	n.s.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3.32 <sup>ab</sup>	3.31 <sup>ab</sup>	3.11 <sup>a</sup>	3.14 <sup>a</sup>	<b>3.39<sup>b</sup></b>	f(4,995)=4.598**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3.33	3.38	3.28	3.22	<b>3.49</b>	f(4,995)=2.677*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 특히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항목에서 40대 시청자 집단(m=3.11)과 50대 시청자 집단(m=3.14)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에 대해 낮게 평가했으며, 60대 시청자 집단(m=3.39)은

가장 높게 평가했음. 이러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 ▷ 이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60대 이상의 시청자 집단은 공익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반면, 40대와 50대의 시청자 집단은 낮게 평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다른 평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남.
- ▷ 이러한 일관된 경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60대 이상의 시청자 집단과 40대 및 50대 시청자들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 추론할 수 있음.
- ▷ 다음 항에서 분석한 정치적 성향별 평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수성향의 시청자들은 모든 평가 차원의 측정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중도진보와 진보 성향의 시청자들은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연령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을 동시에 가상해 볼 때, 60대 이상의 시청자들은 보수적 색채가 짙고, 40대와 50대 시청자들은 진보적 색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때로 20대와 30대 시청자 집단들이 특정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이들이 새로운 보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론들을 뒷받침하는 예증임.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익성 평가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청자 집단의 공익성 평가는 중도 성향의 시청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시청자보다 보수성향이 강한 시청자들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익성 평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위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성향이 중도 성향의 시청자 집단이 다른 집단의 시청자들보다 6개 측

정항목들 중에서 5개 측정항목-‘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3.66),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3.28),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3.39),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3.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진보계열(중도진보 & 진보)의 시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지만, 이들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음.

- ▷ 모든 항목의 평가 결과,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집단 간의 차이를 사후분석(Post hoc)한 결과 세부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 다른 차원의 평가항목에서와는 달리 MBN의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에서는 보수 성향의 시청자 집단이 높게 평가하지 않음.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3.70)는 항목에서만 가장 높게 평가함. 다른 차원 대부분-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에서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높게 평가하고, 중도(중도 진보)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익성 평가에서는 다른 결과가 산출됨.
- ▷ 중도 성향의 시청자 집단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공익성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표 16>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	3.62	3.55	<b>3.66</b>	3.45	3.50	f(4,995)=2.082*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	<b>3.70</b>	3.65	3.68	3.39	3.42	f(4,995)=5.206**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	3.23	3.24	<b>3.28</b>	2.99	3.11	f(4,995)=4.474**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3.26	3.27	<b>3.39</b>	3.08	3.16	f(4,995)=3.913**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3.41	3.40	<b>3.42</b>	3.12	3.25	f(4,995)=4.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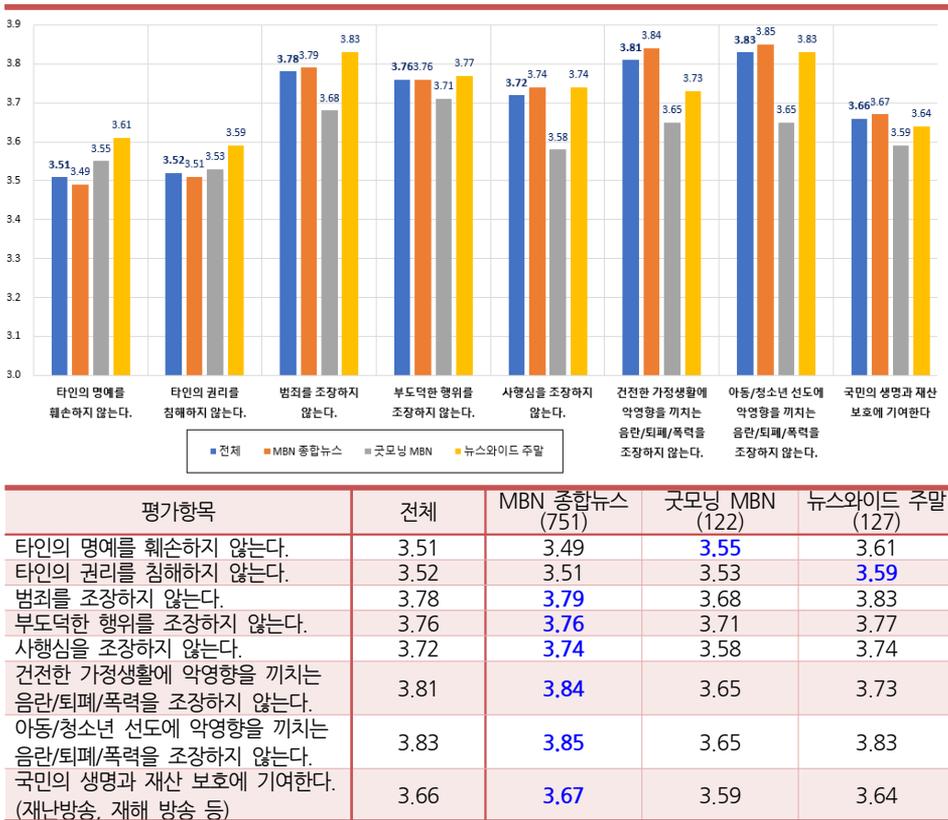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4) 사회적 책임 평가

### (1) 프로그램별 사회적 책임 평가

-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본 조사연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시청자들이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8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음.

<표 17>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조사 결과



- ▷ 분석 결과, 위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에서 시청자들은 평균 3.5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 평가항목별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m=3.51)는 항목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m=3.52)는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이들 항목 역시 모두 3.5를 상회한 평가로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을 공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 프로그램별로는 <MBN 종합뉴스>의 평가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책임 평가

- 다음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에서, 거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함.
- ▷ 반면, 사회적 역기능을 제고하는 ‘범죄를 조장하였다’는 항목에서는 20대 시청자 집단이 가장 높게 평가함.
- ▷ 60대와 20대의 시청자 집단들이 높게 평가하고, 반면에 40대와 50대 시청자 집단들이 낮게 평가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의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실제 세부 집단 간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사후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옴.
- ▷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차원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해내고,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lt;표 18&gt;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60	3.54	3.38	3.44	<b>3.64</b>	f(4.995)=3.65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64	3.45	3.39	3.48	<b>3.66</b>	f(4.995)=4.265**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b>3.88</b>	3.77	3.72	3.75	3.82	n.s.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3.80	3.74	3.68	3.74	<b>3.84</b>	n.s.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	3.69	3.73	3.70	3.74	<b>3.76</b>	n.s.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81	3.76	3.77	3.82	<b>3.86</b>	n.s.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84	3.76	3.79	3.87	<b>3.88</b>	n.s.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	3.64	3.70	3.59	3.63	<b>3.74</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책임 평가

- 사회적 책임의 평가를 정치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보수성향의 시청자가 다른 성향의 시청자에 비해 높음.
  - ▷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아동과 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진보성향의 시청자가 높게 평가함.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수 성향의 시청자(m=3.63)가 진보 성향의 시청자(m=3.35)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됨.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측정항목 들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의 평가치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측정항목에서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높게 평가하고 진보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낮게 평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함.

<표 19>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63	3.52	3.56	3.47	3.30	n.s.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73 <sup>b</sup>	3.54 <sup>ab</sup>	3.59 <sup>ab</sup>	3.40 <sup>a</sup>	3.35 <sup>a</sup>	f(4.995)=3.605**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3.87	3.82	3.82	3.67	3.72	n.s.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3.89	3.76	3.83	3.67	3.69	n.s.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	3.90	3.71	3.74	3.70	3.71	n.s.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87	3.77	3.86	3.76	3.96	n.s.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94	3.80	3.90	3.76	3.94	n.s.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	3.78	3.66	3.61	3.66	3.65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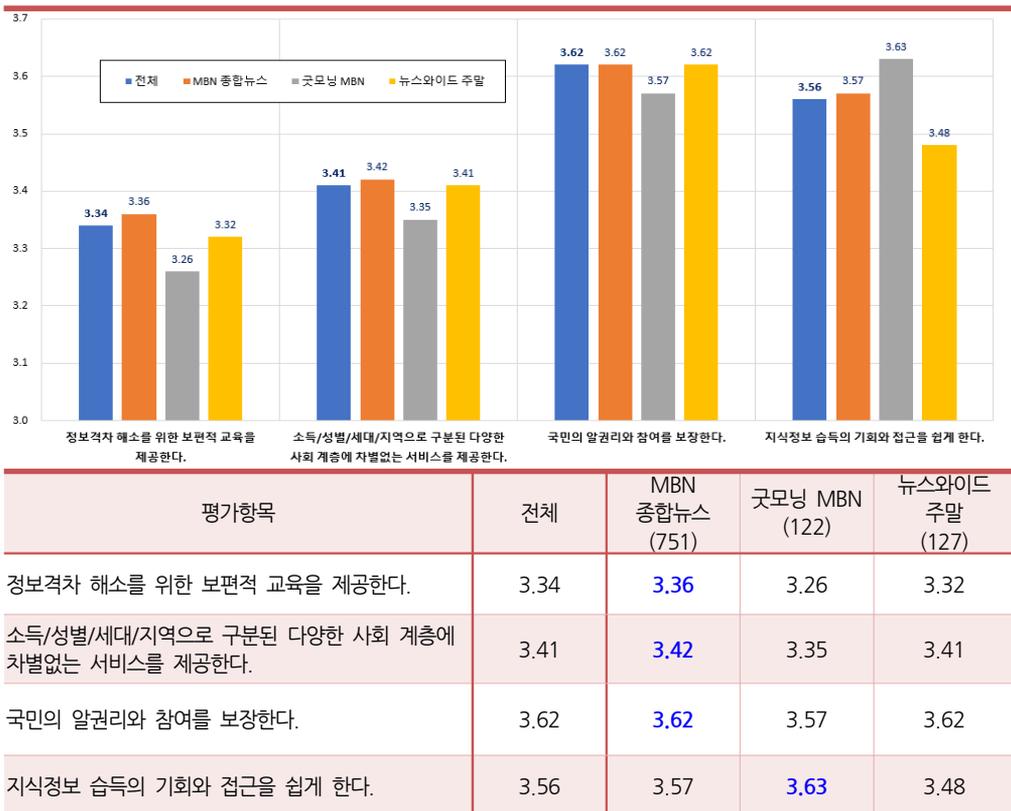
## 5) 사회적 기능 평가

### (1) 프로그램별 사회적 기능 평가

-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시청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3.5 내외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 본 조사연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4가지 측정항목으로 평가하였음.

- ▷ 분석 결과 다음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m=3.62)는 항목과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m=3.56)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 이에 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m=3.34)는 항목과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m=3.41)는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 프로그램별로는 <MBN 종합뉴스>의 평가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표 20>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조사 결과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기능 평가

-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 중에서 30대는 다음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평가한 반면, 5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는 항목은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연령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는 항목은 3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78)가 가장 높고, 5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53)가 가장 낮게 평가했는데, 이들 집단의 평가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30대의 시청자 집단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40대와 50대 시청자들이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표 21>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	3.31	<b>3.48</b>	3.25	3.32	3.37	f(4,995)=2.011*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41	<b>3.55</b>	3.41	3.33	3.40	n.s.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3.61 <sup>ab</sup>	<b>3.78<sup>b</sup></b>	3.56 <sup>ab</sup>	3.53 <sup>a</sup>	3.63 <sup>ab</sup>	f(4,995)=2.711*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	3.63	<b>3.66</b>	3.47	3.53	3.55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기능 평가

-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 기능 평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성향(보수&보수중도)의 시청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중도진보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다른 차원의 평가-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주목해야 함.
  - ▷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와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는 항목은 정치적 성향별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22> 정치적 성향별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	3.45	<b>3.36</b>	<b>3.36</b>	3.26	3.27	n.s.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43	<b>3.48</b>	3.42	3.26	3.41	f(4,995)=2.86 0*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 다.	<b>3.66</b>	3.64	3.74	3.45	3.57	f(4,995)=3.43 1*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	<b>3.68</b>	3.59	3.59	3.43	3.59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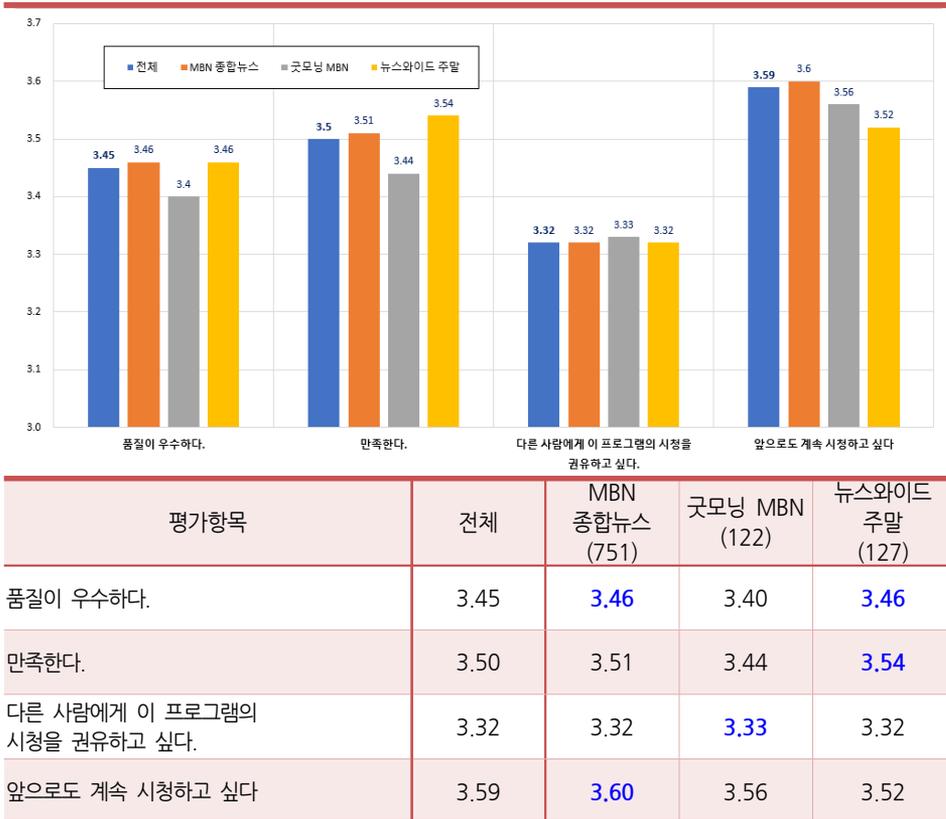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6) 품질평가

### (1) 프로그램별 품질평가

-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품질을 양호하다고 평가함.
  - ▷ 본 조사연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4개 평가항목으로 측정하였음.
  - ▷ 프로그램 품질평가(KI)에 사용된 4개의 평가항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에 개발한 프로그램 품질평가항목임.

<표 23>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조사 결과



- ▷ 분석 결과, 위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청자들은 ‘만족한다’(m=3.50), ‘앞으로 계속 시청하고 싶다’(m=3.59)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m=3.32)는 항목과 ‘품질이 우수하다’(m=3.45)는 항목은 낮게 평가했음.
- ▷ 프로그램별로는 <MBN 종합뉴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품질이 우수하다’(m=3.46)는 항목과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m=3.60)는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품질평가

- 품질평가에 대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 보면, 다른 차원의 평가-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진행자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다음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대 시청자 집단은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 집단들에 비해 높게 평가함.
- ▷ 반면 4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 ▷ ‘만족한다’는 항목에서는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65)가 가장 높고 4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36)가 가장 낮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는 항목에서도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77)가 가장 높고, 4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49)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 이같이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높고, 40대와 50대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낮은 것은 다른 차원의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목하여,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른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령에 따른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시청률의 편향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

나 40대와 50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낮은 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4>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품질이 우수하다.	3.43	3.54	3.39	3.43	<b>3.50</b>	n.s.
만족한다.	3.53 <sup>ab</sup>	3.63 <sup>ab</sup>	3.36 <sup>a</sup>	3.40 <sup>ab</sup>	<b>3.65<sup>b</sup></b>	f(4,995)=4.336**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	3.31	3.41	3.23	3.21	<b>3.48</b>	f(4,995)=3.347*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	3.54 <sup>ab</sup>	3.64 <sup>ab</sup>	3.49 <sup>a</sup>	3.53 <sup>ab</sup>	<b>3.77<sup>b</sup></b>	f(4,995)=3.151*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품질평가

- 정치적 성향별로 구분된 시청자들의 품질평가에서도 다른 차원의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성향(보수 & 보수중도)의 시청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 그러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품질평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청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품질에 대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 간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관되게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는 높고, 진보성향의 시청자 집단에서는 낮은 것은 주목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발전적 방안 강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lt;표 25&gt;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품질이 우수하다.	3.55	3.47	3.44	3.36	3.52	n.s.
만족한다.	3.67	3.54	3.55	3.32	3.54	n.s.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	3.47	3.40	3.34	3.07	3.28	n.s.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	3.63	3.66	3.62	3.39	3.54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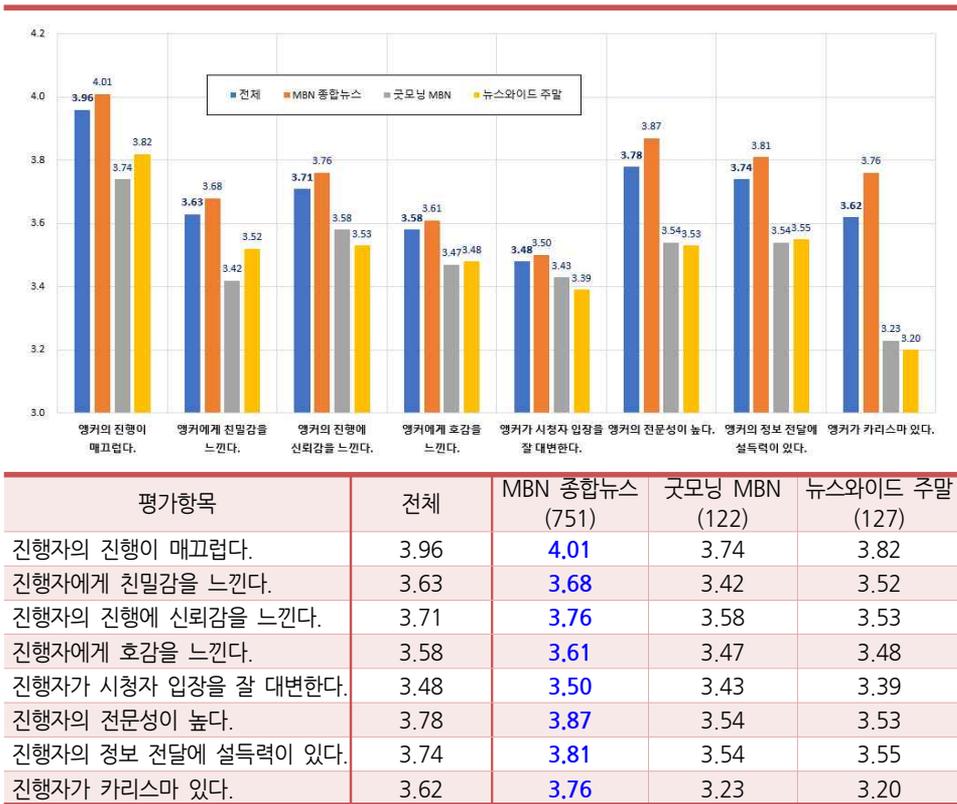
## 7) 진행자 평가

### (1) 프로그램별 진행자 평가

- 시청자들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음.
  - ▷ 본 조사연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진행자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8개의 진행자 측정항목으로 평가하였음.
  - ▷ 측정 결과,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항목에서 시청자들은 평균 3.5점 이상으로 진행자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진행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다른 차원-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능, 품질평가-의 평가보다 높은 평가치임.
  - ▷ 특히 ‘진행이 매끄럽다’(m=3.96)는 항목과 ‘전문성이 높다’(m=3.78), ‘정보전달에 설득력이 있다’(m=3.74)는 항목의 평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 ▷ 프로그램별로는 <MBN종합뉴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진행이 매끄럽다’(m=4.01)는 항목과 ‘정보전달에 설득력이 있다’(m=3.81)는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진행자들에 대한 평가가 프로그램의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에서 다루는 뉴스 아이템들 선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대책이 필요함.

<표 26>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 평가 결과



- 진행자 신뢰도는 시청률과 직결되는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방송사로서는 중요한 변인임.
- ▷ 만약 MBN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신뢰도가 이처럼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들에 비해 시청률이 낮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요인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진행자 평가

-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진행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60대의 평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 20대와 40대의 평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 ‘친밀감을 느낀다’는 평가항목은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70)가 가장 높고, 2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5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적 차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후 검증(Scheffe)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 ▷ 그렇더라도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는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40대와 5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는 낮게 나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그런데 이 항목과 같이 20대 시청자 집단에서 진행자의 ‘친밀도’ 측정항목에서 낮게 나왔다는 점은 진행자의 내부적 요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MZ 세대의 속성으로 인해 뉴스 프로그램의 내용(기사 선택 및 구성내용 등)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진행자 옷차림이나 말투 제스처 등에 의해서도 친밀도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야 함.
  - ▷ 이에 대해서는 진행자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표 27> 연령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	3.39	3.53	3.42	3.49	<b>3.58</b>	n.s.
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3.55	3.64	3.62	3.61	<b>3.70</b>	f(4,995)=3.012*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	3.53	3.66	3.51	3.65	<b>3.79</b>	n.s.
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3.49	3.58	3.52	3.58	<b>3.72</b>	n.s.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	3.66	3.72	3.73	3.75	<b>3.87</b>	n.s.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	3.95	4.03	3.87	3.94	<b>4.01</b>	n.s.
진행자의 정보 전달에 설득력이 있다.	3.64	3.81	3.75	3.86	<b>3.86</b>	n.s.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	3.66	3.78	3.67	3.66	<b>3.81</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진행자 평가

○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진행자 평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항목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보수성향(보수&보수중도)의 시청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중도진보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카리스마가 있다’는 항목에서는 진보 시청자 집단의 평가(m=3.72)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는 항목과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는 항목 그리고 ‘정보전달에 설득력이 있다’는 항목들에 있어서 이들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 ▷ ‘시청자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는 항목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m=3.61)가 가장 높고,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m=3.23)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lt;표 28&gt; 정치적 성향별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	<b>4.16</b>	4.08	3.92	3.86	3.96	f(4,995)=3.150*
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b>3.72</b>	3.75	3.62	3.52	3.62	n.s.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	<b>3.78</b>	3.81	3.77	3.49	3.66	f(4,995)=3.952* *
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3.50	<b>3.66</b>	3.62	3.43	3.60	n.s.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	3.59 <sup>ab</sup>	<b>3.61<sup>b</sup></b>	3.51 <sup>ab</sup>	3.23 <sup>a</sup>	3.55 <sup>ab</sup>	f(4,995)=5.545* *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	3.85	<b>3.87</b>	3.81	3.62	3.83	n.s.
진행자의 정보 전달에 설득력이 있다.	<b>3.90</b>	3.77	3.79	3.57	3.71	f(4,995)=2.861* *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	3.51	3.64	3.68	3.48	<b>3.72</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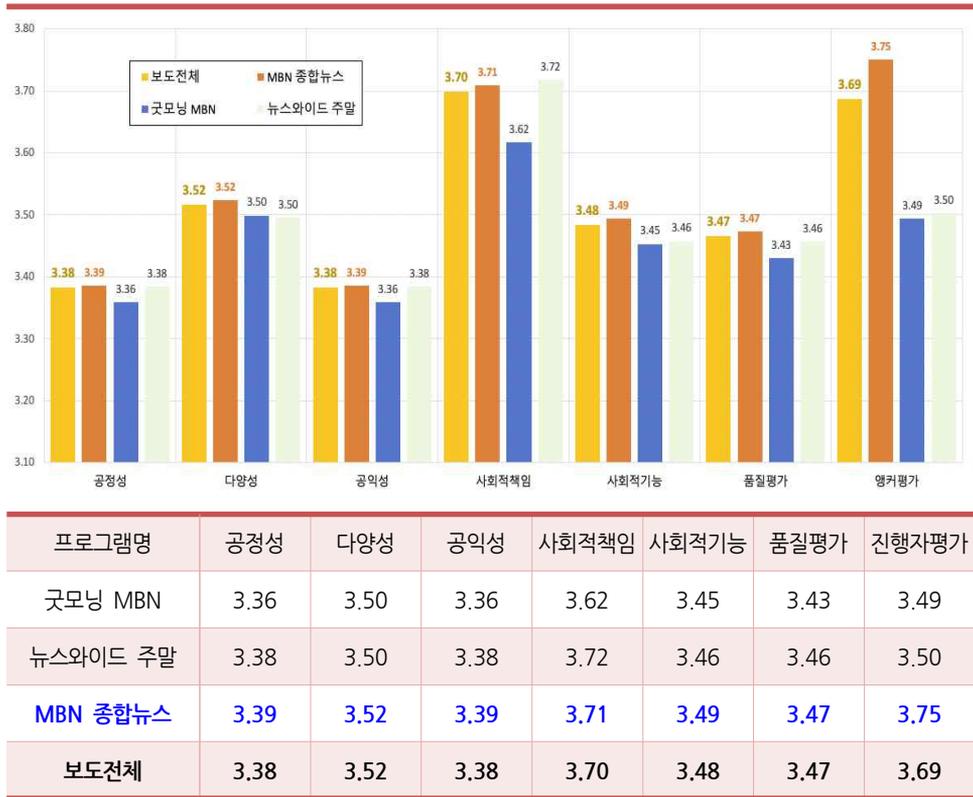
- 이들 측정항목에서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보다는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보수성향(보수 및 중도보수)의 시청자 집단은 다른 차원의 평가에서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진보성향, 특히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일관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해야 함.

## 8) 소결

-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7가지 차원의 평가-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를 보다 요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평가 차원의 평가항목을 평균하여 각 차원의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여 보았음.

- ▷ 분석 결과, 다음 <표 29>와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평가 차원들 중에서 높게 평가된 차원들은 사회적 책임(m=3.70)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진행자 평가(m=3.69)와 다양성 평가(m=3.52)가 뒤를 잇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평균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음.
- ▷ 그 외 공정성 평가(m=3.38), 공익성 평가(m=3.38), 품질평가(m=3.47), 사회적 기능 평가(m=3.48) 등도 모두 평균 3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음.
- ▷ 모든 평가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프로그램은 <MBN 종합뉴스>로 다른 뉴스 프로그램들보다 평가 점수가 높았음.

<표 29> 뉴스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별 결과



- ▷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차원별 결과를 종합하면, MBN의 뉴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시청자의 인식조사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차원이 존재하지만 이들 평가치들 역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30> 뉴스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별 세부 집단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책임	사회적기능	품질평가	진행자평가	
전체	3.38	3.52	3.38	3.70	3.48	3.47	3.69	
연령	19~29세	3.40	3.46	3.40	3.74	3.49	3.45	3.61
	30대	3.42	3.57	3.42	3.68	<b>3.62</b>	3.55	3.72
	40대	3.32	3.53	3.32	3.63	3.42	3.37	3.64
	50대	3.29	3.48	3.29	3.68	3.43	3.39	3.69
	60대	<b>3.50</b>	<b>3.56</b>	<b>3.50</b>	<b>3.77</b>	3.49	<b>3.60</b>	<b>3.79</b>
정치성향	보수	3.44	<b>3.59</b>	3.44	<b>3.83</b>	<b>3.56</b>	<b>3.58</b>	3.75
	중도보수	<b>3.48</b>	3.58	<b>3.48</b>	3.74	3.53	3.49	<b>3.77</b>
	중도	3.42	3.55	3.42	3.70	3.52	3.52	3.71
	중도진보	3.20	3.36	3.20	3.64	3.35	3.29	3.52
	진보	3.29	3.54	3.29	3.66	3.46	3.47	3.70

-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에서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시청자 집단은 사회적 기능 차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차원의 평가-공정성 평가(3.50), 다양성 평가(3.56), 공익성 평가(3.50), 사회적 책임 평가(3.77), 품질평가(3.60), 진행자 평가(3.79)-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시청자들은 이들 차원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음.
- ▷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향-60대 시청자는 높게 평가하고 40대와 50대 시청자들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어떻게 하면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서 고를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 역시 보수성향(보수와 중도보수)의 시청자들은 높게 평가하고, 진보성향(중도진보와 진보)의 시청자들은 일관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음.
  - ▷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일관된 평가 경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에 주목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MBN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경향을 전환시켜 모든 시청자들이 고르게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별 평가 결과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음.

<표 31> 뉴스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

	평가항목	뉴스 전체	MBN 종합뉴스	굿모닝 MBN	뉴스와이드 주말
공정성	차원평균	3.38	<b>3.39</b>	3.36	3.38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3.57	<b>3.58</b>	3.57	3.51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54	3.54	3.50	<b>3.55</b>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와 시간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3.42	3.40	<b>3.53</b>	3.47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3.41	3.39	3.38	<b>3.49</b>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	3.39	3.37	3.41	<b>3.50</b>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3.38	3.35	<b>3.52</b>	3.39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3.54	3.53	3.56	<b>3.59</b>
	차원평균	<b>3.52</b>	<b>3.52</b>	3.50	3.50
	다양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	3.64	3.64	<b>3.66</b>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		<b>3.51</b>	<b>3.51</b>	3.49	3.49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		3.75	<b>3.78</b>	3.63	3.70

공익성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3.66	3.66	3.64	3.61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40	3.41	3.38	3.37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15	3.14	3.19	3.16
	차원평균	3.38	3.39	3.36	3.38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	3.55	3.58	3.46	3.50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	3.59	3.60	3.57	3.56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	3.19	3.18	3.22	3.18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3.25	3.23	3.28	3.29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3.33	3.34	3.25	3.40
사회적 책임	차원평균	3.70	3.71	3.62	3.7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51	3.49	3.55	3.6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52	3.51	3.53	3.59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3.78	3.79	3.68	3.83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3.76	3.76	3.71	3.77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	3.72	3.74	3.58	3.74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81	3.84	3.65	3.73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83	3.85	3.65	3.83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	3.66	3.67	3.59	3.64
사회적 기능	차원평균	3.48	3.49	3.45	3.46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	3.34	3.36	3.26	3.32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41	3.42	3.35	3.41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3.62	3.62	3.57	3.62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	3.56	3.57	3.63	3.48
	차원평균	3.47	3.47	3.43	3.46
품질 평가	품질이 우수하다	3.45	3.46	3.40	3.46
	만족한다	3.50	3.51	3.44	3.54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	3.32	3.32	3.33	3.32
진행자 평가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	3.59	3.60	3.56	3.52
	차원평균	3.69	3.75	3.49	3.50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	3.96	4.01	3.74	3.82
	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3.63	3.68	3.42	3.52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	3.71	3.76	3.58	3.53
	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3.58	3.61	3.47	3.48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	3.48	3.50	3.43	3.39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	3.78	3.87	3.54	3.53
	진행자의 정보 전달에 설득력이 있다	3.74	3.81	3.54	3.55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	3.62	3.76	3.23	3.20	

### 3. 시사 프로그램 평가 결과

- 시청자들은 MBN이 편성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차원-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설문했음.
- ▷ MBN에 방송된 5개 시사 프로그램-<아침앤매일경제>, <MBN 뉴스와이드>, <뉴스파이터>, <시사 스페셜>, <MBN 프레스룸>- 중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조사함.
- ▷ 조사 결과, 다음 <그림 6>과 같이 <뉴스 파이터>가 3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MBN 뉴스와이드> 22.2%, <MBN 프레스 룸> 19.0%, <아침앤매일경제> 11.8%, <시사 스페셜> 8.5%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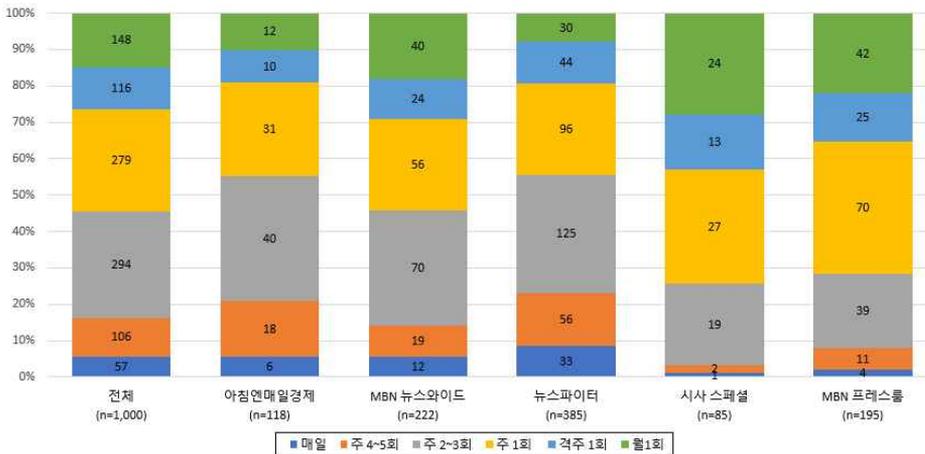


[그림 6]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사 프로그램

- MBN채널 및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충성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이 주로 시청한다고 선택한 시사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지 조사함.

- ▷ 분석 결과, 다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1회 방송하는 <시사 스페셜>을 제외하고, 시청자의 60% 이상이 MBN 시사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주 2회 내지 3회 이상 MBN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율도 40%를 상회함.
- ▷ 일요일에만 방송되는 <시사 스페셜>도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였음. 이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충성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예증임.
- ▷ 본 조사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 몇 회를 시청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주로 시청한다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MBN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 하지만 자신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빈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채널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선택하지 않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들은 역시 자주 시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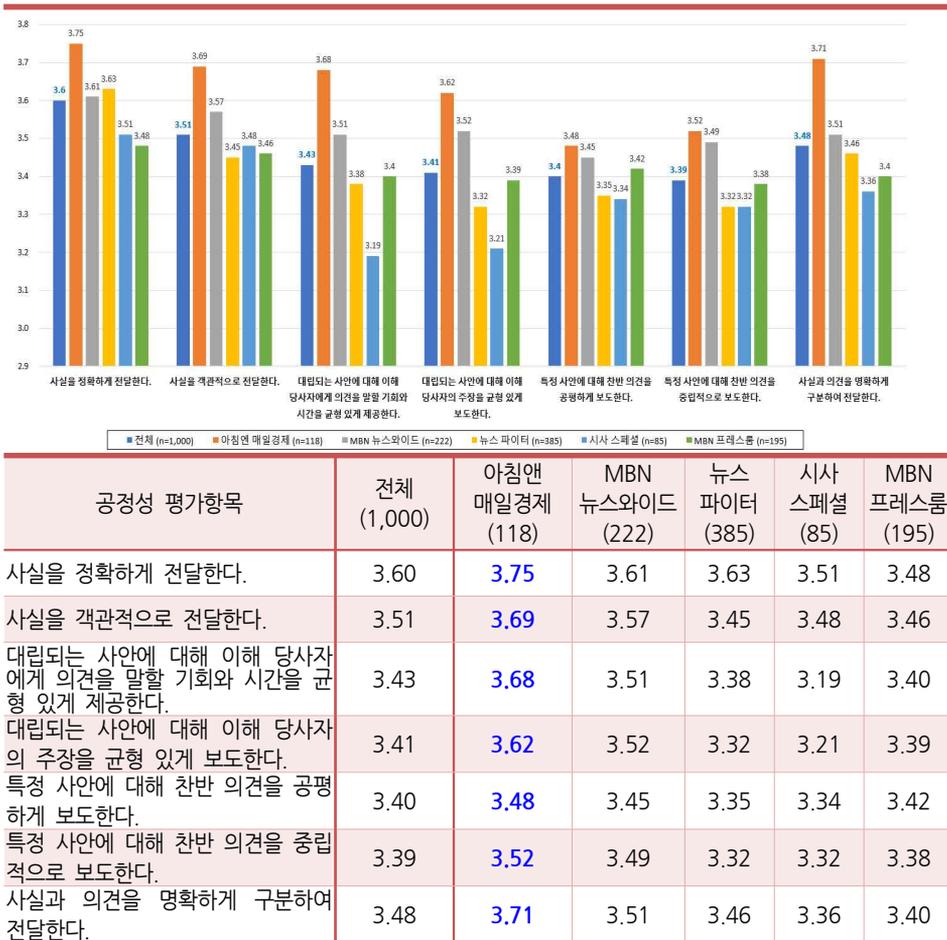
[그림 7] 시사 프로그램 시청정도

# 1) 공정성 평가

## (1) 프로그램별 공정성 평가

○ 시청자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에서 시청자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함.

<표 32>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조사 결과



- ▷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평가 역시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에 활용한 7개 항목의 평가척도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조사함.
- ▷ 분석 결과, 위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항목 모두에서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을 받아 높은 평가를 받음.
- ▷ 구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m=3.60)’는 항목,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m=3.51)’는 항목에서 평균 3.5점 이상의 평가를 받음.
- ▷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다룬다’는 항목에서는 평균 3.39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의 평균(3.38)보다 높았음.
- ▷ 프로그램에서는 <아침앤매일경제>가 7개의 공정성 평가항목 모두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음.
- ▷ 반면에 대부분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시사 스페셜>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이는 <시사 스페셜>이 주말에만 편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음. 시청 횟수가 충성도를 결정하고, 충성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임.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정성 평가

- 공정성 평가항목에 대해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정성 평가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를 실시함.
  - ▷ 분석 결과, 다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항목과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는 항목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들이 실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후 검증과정에서 집

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짐.

▷ 세부 집단의 평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모든 평가항목에서 60대 시청자들이 MBN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다른 연령층의 시청자들에 비해 공정하다고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평가 차원-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에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평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더라도 60대 시청자 집단은 일관되게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반대로 40대와 50대의 시청자 집단들은 일관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이에 대해 주목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발전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고 판단됨.

<표 33>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3.64	3.49	3.53	3.56	<b>3.78</b>	f(4.995)=3.799 **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51	3.43	3.44	3.51	<b>3.64</b>	n.s.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와 시간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3.38	3.38	3.40	3.41	<b>3.61</b>	f(4.995)=2.389 *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3.38	3.42	3.32	3.37	<b>3.57</b>	n.s.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	3.43	3.36	3.33	3.43	<b>3.46</b>	n.s.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3.36	3.39	3.30	3.40	<b>3.51</b>	n.s.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3.48	3.51	3.38	3.44	<b>3.62</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정성 평가

- 공정성 평가항목을 시청자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전반적으로 진보와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 점수는 낮고,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 점수는 높았음.
- ▷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한다’는 항목과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는 항목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표 34>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3.77	3.65	3.61	3.51	3.42	n.s.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71	3.54	3.53	3.39	3.41	n.s.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와 시간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3.45	3.45	3.47	3.32	3.43	n.s.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3.64	3.41	3.44	3.26	3.32	f(4.995)=2.964*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	3.60	3.44	3.44	3.26	3.25	f(4.995)=2.956*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3.56	3.39	3.42	3.30	3.29	n.s.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3.69	3.48	3.49	3.41	3.45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 이 같은 결과는 보수적 성향의 시청자들이 MB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더 자주 시청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임.
- ▷ 즉, 보수성향의 시청자들이 다양한 차원-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 등-의 평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보수성향의

시청자 정치적 취향에 적합하기 때문에 MBN 시사 프로그램을 다른 정치적 성향의 시청자들보다 자주 시청하고, 그 결과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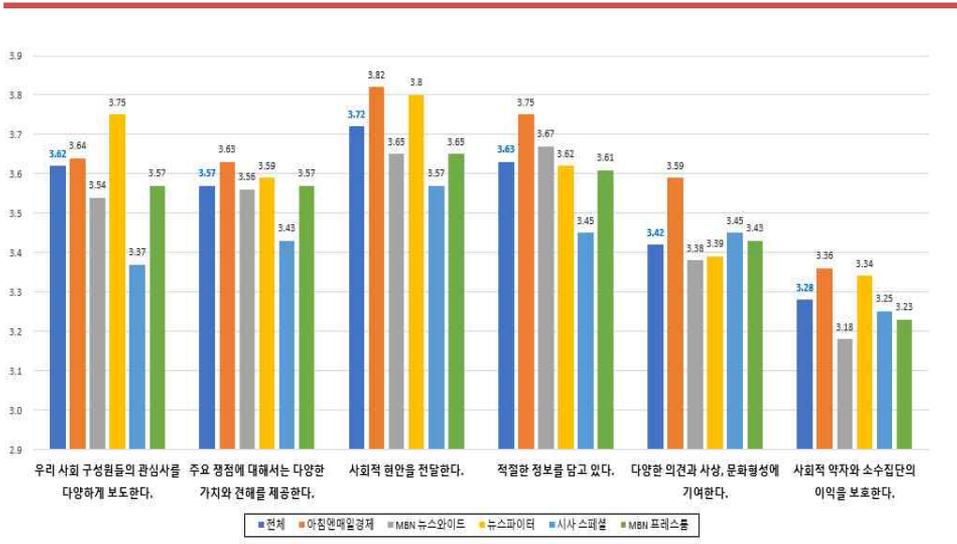
## 2) 다양성 평가

### (1) 프로그램별 다양성 평가

- 시청자들은 대체로 MBN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본 조사연구는 MBN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 시청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을 평가했던 6개의 다양성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음.
- ▷ 분석 결과, 아래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리커트 척도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된 다양성 평가항목 중에서 4개의 항목에서 평균 3.5점 이상을 받음
- ▷ 다만,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는 항목(m=3.42)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항목(m=3.28)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 프로그램별로는 <아침앤매일경제>가 6개 평가항목 중에서 5개 평가항목-‘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3.63),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3.82),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3.75),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3.59),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3.36)-에서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음. 이 같은 결과에 토대를 두고 <아침앤매일경제>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높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 다음으로 <뉴스파이터>가 높은 평가를 받음. ‘우리 사회 구성원들

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3.75)는 평가항목에서 <뉴스파이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는 항목과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는 항목,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항목 등에는 <아침엔매일경제>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

<표 35>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결과



평가항목	전체 (1,000)	아침엔매일경제 (118)	MBN 뉴스와이드 (222)	뉴스파이터 (385)	시사스페셜 (85)	MBN 프레스룸 (195)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	3.62	3.64	3.54	<b>3.75</b>	3.37	3.57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	3.57	<b>3.63</b>	3.56	3.59	3.43	3.57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	3.72	<b>3.82</b>	3.65	3.80	3.57	3.65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3.63	<b>3.75</b>	3.67	3.62	3.45	3.61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42	<b>3.59</b>	3.38	3.39	3.45	3.43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28	<b>3.36</b>	3.18	3.34	3.25	3.23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다양성 평가

-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MBN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자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다양성 평가자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통계적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 간에는 어느 집단의 시청자들이 다양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동일한 수준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표 36>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	3.58	3.67	3.62	3.57	<b>3.69</b>	n.s.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	3.52	3.54	3.57	3.49	<b>3.75</b>	f(4,995)=2.758*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	3.63	3.72	3.75	3.73	<b>3.78</b>	n.s.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3.59	3.68	3.63	3.59	<b>3.69</b>	n.s.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44	3.44	3.41	3.36	<b>3.49</b>	n.s.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34	3.30	3.16	3.27	<b>3.36</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60대 시청자 집단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다양성 평가에서 일관되게 다른 연령대 시청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의 시청자 집단은 MBN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 항목들로 세분화해볼 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는 항목에서는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 간의 평가치들은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실제 하위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차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평가치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60대 시청자 집단이 MBN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모든 평가항목에서 일관되게 높게 평가하는 반면 50대 시청자 집단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일관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다양성 평가

- 다음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원변량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보수 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3.76)는 항목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3.70)는 항목,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3.75)는 항목,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3.65)는 항목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3.36)는 항목에서 다른 정치적 성향의 시청자 집단들보다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게 평가했음. 그리고 나머지 한 평가항목인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3.75)는 항목에서도 중도보수가 가장 높게 평가했음.
- ▷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는 항목 역시 일원변

량분석결과 중도진보가 가장 낮고, 보수성향의 시청자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표 37>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	3.76	3.62	3.63	3.57	3.63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	3.70	3.59	3.58	3.52	3.45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	3.75	3.79	3.71	3.69	3.72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3.75	3.70	3.63	3.55	3.59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65 <sup>b</sup>	3.43 <sup>ab</sup>	3.45 <sup>ab</sup>	3.29 <sup>a</sup>	3.42 <sup>ab</sup>	f(4,995)=2.579*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36	3.31	3.30	3.20	3.22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공익성 평가

#### (1) 프로그램별 공익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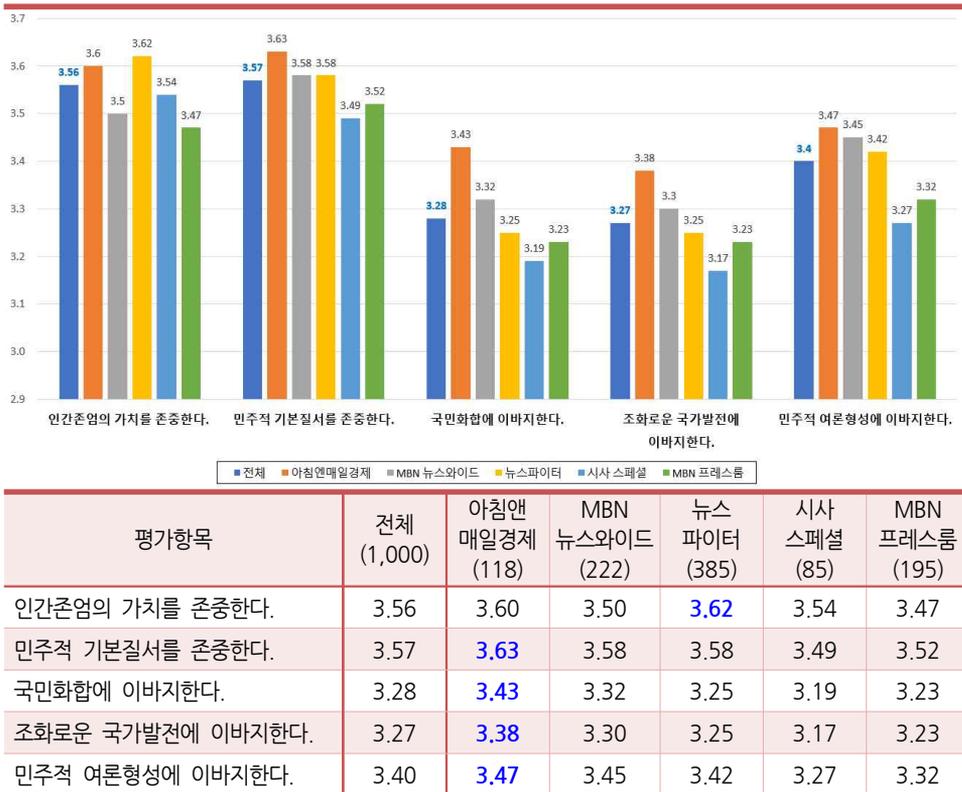
○ MBN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에 대해 시청자들은 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으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 본 조사연구는 MBN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5가지 항목과 동일한 측정항목을 원용하여 조사하였음.
- ▷ 조사 결과는 다음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청자들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m=3.56)는 항목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

중한다'(m=3.57)는 항목에 대해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함.

- ▷ 반면, 시청자들은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m=3.28)는 항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m=3.27)는 항목 그리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m=3.40)는 항목 등은 앞서 논의한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래도 이들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27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어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표 38>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결과



- ▷ 프로그램별로는 전반적으로 <아침엔매일경제>가 5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4개의 평가항목-‘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3.62), ‘국민

‘통합에 이바지한다’(3.43),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3.38),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3.47)-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 되었고, <뉴스 파이터>도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3.62)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음.

- ▷ 반면, 일요일에 한번만 편성된 <시사 스페셜>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됨. <시사 스페셜>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1주일에 1회만 편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 관찰과 분석이 필요함.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익성 평가

○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익성 평가와 관련하여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의 평가치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는데, 다음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60대 시청자 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고, 20대 시청자 집단이 다음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들의 평가에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의 평가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옴.
- ▷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항목에서는 2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61)가 다른 어떤 집단들의 평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항목에서 4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17)와 5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19)가 다른 연령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보다 낮게 나왔으며, 반면에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음, 그리고 이들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의 평가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9>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	3.61	3.56	3.50	3.53	<b>3.60</b>	n.s.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	3.53	3.57	3.56	3.50	<b>3.69</b>	n.s.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	3.34	3.35	3.17	3.19	<b>3.38</b>	f(4,995)=2.422*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3.25	3.34	3.19	3.20	<b>3.39</b>	n.s.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3.41	3.42	3.34	3.36	<b>3.49</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 < .05$ , \*\*:  $< .01$

- 따라서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는 연령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짐.
  - ▷ 60대 이상의 시청자 집단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공익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시청자 집단은 낮게 평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 이러한 연령 요인의 의해 평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공익성 평가

-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익성 평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평가항목-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진보성향(중도진보 & 진보)의 시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러나 이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 ▷ ‘국민화합에 기여한다’와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 간의 평가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사후검증 결과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 간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검증되지는 않지만, 다른 평가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이 강한 집단에 속한 시청자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공익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표 40>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	3.77	3.58	3.56	3.49	3.44	n.s.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	3.79	3.64	3.55	3.49	3.47	n.s.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	3.48	3.32	3.33	3.10	3.08	f(4,995)=4.191**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3.46	3.32	3.28	3.12	3.26	f(4,995)=2.716*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3.56	3.45	3.41	3.32	3.26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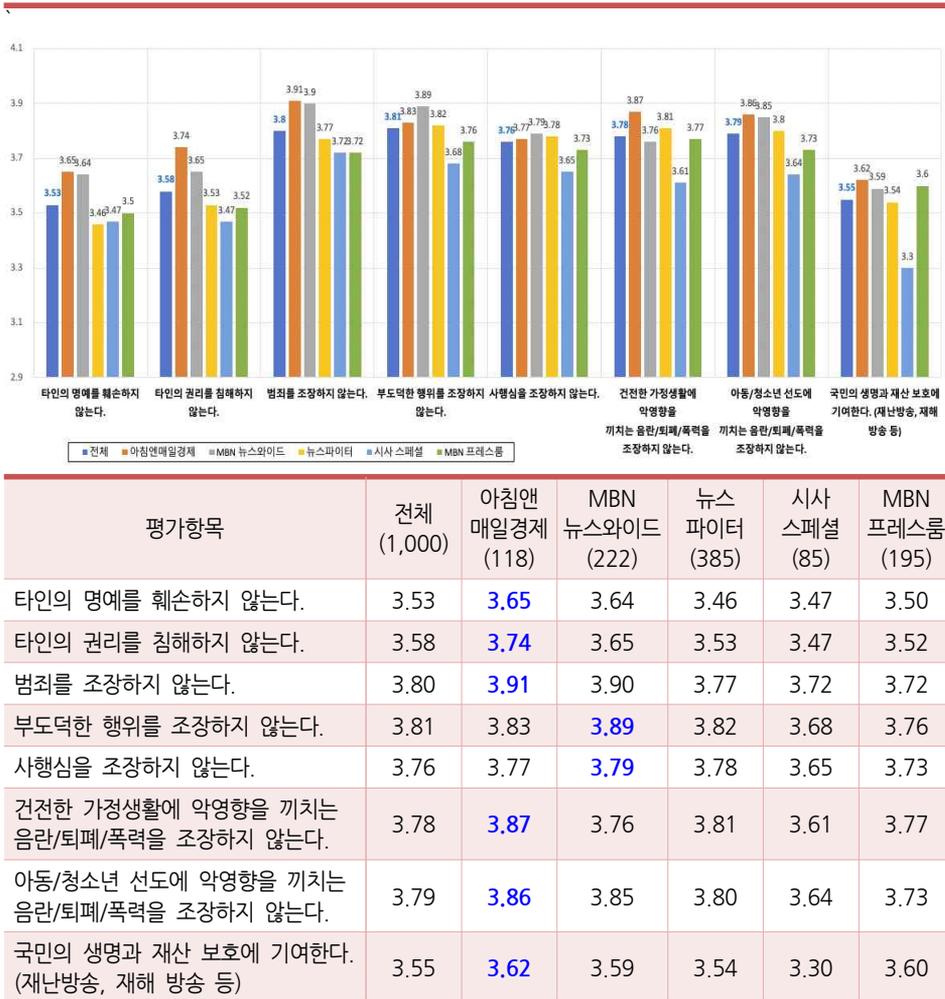
#### 4) 사회적 책임 평가

##### (1) 프로그램별 사회적 책임 평가

- 시청자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본 조사연구는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한 8가지 항목을 원용해서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 조사 결과, 다음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이 평균 3.5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시청자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책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 ▷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책임의 평가항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예를 들어, <아침엔매일경제>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항목들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측정항목에서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이 거의 유사한 평가치를 보이고 있음(예를 들어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 모두가 유사한 평가치를 보임).

<표 41>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조사 결과



- ▷ 그러나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측정항목들의 평가치들 간에는 큰 차이를 보임(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항목의 평가치들과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의 평가치들은 크게 차이를 보임). 이 같은 분석 결과에 토대하여 시청자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 동일한 측정항목에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적 책임 항목을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음.
- ▷ 이 같은 결과로 인해 MBN에 편성된 시사 프로그램들 간의 사회적 책임 측정치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한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음.
- ▷ 구체적으로 평가항목별로 보면,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유사하게 높은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는 항목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m=3.5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m=3.58)는 항목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측정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 프로그램별로는 <아침앤매일경제>의 평가가 8개 평가항목 중에서 6개 평가항목-‘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3.65),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3.74),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3.91),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3.87),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3.86),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3.62)-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 ▷ 다음으로 <MBN뉴스와이드>가 두 개 평가항목-‘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3.89),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3.79)-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 반면에 <시사 스페셜>은 다른 항목들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시사스페셜>이 다른 평가 차원들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 원인 분석과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책임 평가

- MBN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다른 연령대 집단의 평가보다 높지만, 대부분 항목에서 이들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옴.
  -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집단 간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으나, 사후검증(Scheffe)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는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 $m=3.66$ )가 가장 높은 반면, 4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 $m=3.39$ )가 가장 낮았으며,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짐.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다른 항목들도 60대 시청자 집단은 일관되게 높게 평가하고, 40대 시청자 집단은 일관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42>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59 <sup>ab</sup>	3.54 <sup>ab</sup>	3.39 <sup>a</sup>	3.50 <sup>ab</sup>	<b>3.66<sup>b</sup></b>	f(4,995)=2.92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61	3.50	3.47	3.59	<b>3.72</b>	f(4,995)=2.491*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3.78	3.74	3.78	3.84	<b>3.88</b>	n.s.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3.82	3.77	3.76	3.81	<b>3.91</b>	n.s.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	3.72	3.75	3.72	3.79	<b>3.82</b>	n.s.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70	3.75	3.81	3.77	<b>3.88</b>	n.s.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82	3.74	3.78	3.75	<b>3.87</b>	n.s.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	3.50	3.50	3.57	3.58	<b>3.61</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책임 평가

○ MB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치들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 간의 평가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극단의 정치적 성향-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시청자가 다른 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3.89)는 항목과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3.94)는 항목에서는 보수 성향의 시청자 집단과 진보성향의 시청자 집단이 동일하게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
- ▷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총 8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위의 2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5개 평가항목-‘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3.8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3.81),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3.91),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3.85),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3.69)-에서 다른 정치적 성향의 집단들에 비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4.05)는 항목에서는 진보성향의 시청자가 높게 평가함. 물론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도 3.98로 다음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중도성향의 시청자 집단(3.71)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표 43>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b>3.82<sup>b</sup></b>	3.64 <sup>ab</sup>	3.48 <sup>ab</sup>	3.44 <sup>a</sup>	3.59 <sup>ab</sup>	f(4,995)=3.81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b>3.81<sup>b</sup></b>	3.67 <sup>ab</sup>	3.56 <sup>ab</sup>	3.44 <sup>a</sup>	3.61 <sup>ab</sup>	f(4,995)=3.177*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b>3.89</b>	3.82	3.77	3.82	<b>3.89</b>	n.s.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b>3.94</b>	3.87	3.77	3.77	<b>3.94</b>	n.s.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	<b>3.91</b>	3.78	3.74	3.71	3.81	n.s.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98	3.85	3.71	3.76	<b>4.05</b>	f(4,995)=3.728**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b>3.85</b>	3.81	3.76	3.82	3.84	n.s.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	<b>3.69</b>	3.53	3.54	3.55	3.59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수성향의 시청자(m=3.82)가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m=3.44)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됨.
- 다른 차원의 평가항목에서도 그렇지만, 극단의 정치적 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도 성향의 시청자들은 극단의 시청자 집단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른 종합편성채널들과 마찬가지로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도 극단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패널들이 참여하여 논박에 가까운 논쟁의 형식으로 포맷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5) 사회적 기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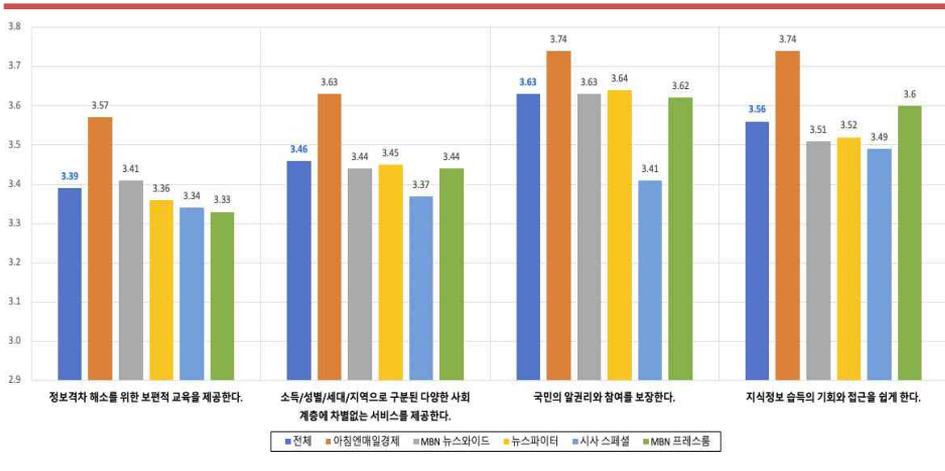
### (1) 프로그램별 사회적 기능 평가

- 시청자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 ▷ 본 조사연구는 MBN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를 위해 뉴스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하는 4개의 항목을 원용하여 측정하였음.
  - ▷ 측정 결과, 다음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m=3.39)는 항목과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m=3.46)는 항목은 매우 낮게 평가된 반면,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m=3.63),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m=3.56)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 사회적 기능의 평가항목에서도 시청자들은 <아침앤매일경제>프로

그램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측정항목에 대해 유사한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나옴. 그러나 <아침엔매일경제>의 항목평가가 다른 항목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임.

- ▷ 프로그램별로는 <아침엔매일경제> 프로그램은 다른 차원-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의 시사 프로그램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표 44>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조사 결과



평가항목	전체 (1,000)	아침엔 매일경제 (118)	MBN 뉴스와이드 (222)	뉴스 파이터 (385)	시사 스페셜 (85)	MBN 프레스룸 (19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	3.39	3.57	3.41	3.36	3.34	3.33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46	3.63	3.44	3.45	3.37	3.44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3.63	3.74	3.63	3.64	3.41	3.62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	3.56	3.74	3.51	3.52	3.49	3.60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기능 평가

- 다른 차원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60대 시청자 집단과 20대 시청자 집단은 MBN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50대 시청자 집단은 이들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 기능 평가에 대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60대 시청자들은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들보다 MBN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는 평가항목에서는 20대 시청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들보다 MBN 시사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 거의 모든 항목에서 50대 시청자 집단은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 집단에 비해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기능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	3.40	3.43	3.33	3.35	<b>3.45</b>	n.s.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47	3.50	3.46	3.35	<b>3.53</b>	n.s.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3.61	3.60	3.65	3.58	<b>3.71</b>	n.s.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	<b>3.63</b>	3.61	3.55	3.49	3.52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 그러나 이들 모든 항목에서의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 다른 평가 차원-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경향성-60대 시청자 집단은 높게 평가하고, 다음으로 20대 시청자 집단이 높게 평가하는 반면, 항상 일관되게 40대와 50대 시청자 집단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지는 바,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의 차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사회적 기능 평가

- 다른 차원의 시사 프로그램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MBN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높게 평가함.
  - ▷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회적 기능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 간의 평가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보수성향의 시청자가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중도진보를 포함한 진보성향의 시청자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게 평가함.
  -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는 항목은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m=3.66)가 가장 높고,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m=3.34)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원변량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밝혀졌음.
  - ▷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항목은 정치적 성향별로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 간의 평가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6>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	3.66 <sup>b</sup>	3.35 <sup>ab</sup>	3.38 <sup>ab</sup>	3.34 <sup>a</sup>	3.43 <sup>ab</sup>	f(4,995)=2.470*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60	3.48	3.50	3.31	3.43	f(4,995)=2.406*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3.67	3.71	3.63	3.60	3.44	n.s.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	3.75	3.56	3.58	3.48	3.42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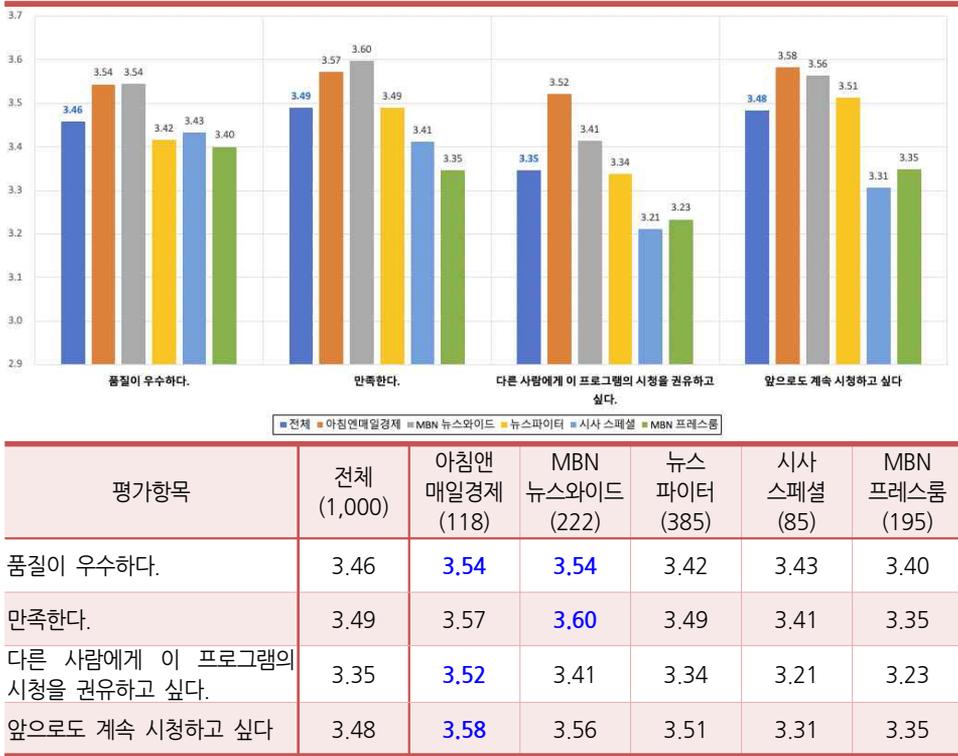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6) 품질평가

### (1) 프로그램별 품질평가

- 시청자들은 MBN 시사 프로그램 품질에 대해서는 중간보다 약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본 조사연구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프로그램 품질평가지수(KI) 4개 항목을 원용해 측정하였음.
  - ▷ 측정 결과, 다음의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품질평가항목에 대해 ‘만족한다’(m=3.49)는 항목, ‘앞으로 계속 시청하고 싶다’(m=3.48)는 항목, ‘품질이 우수하다’(m=3.46)는 항목,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m=3.35)는 항목 순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 프로그램별로는 <아침앤매일경제>가 다른 차원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특히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m=3.58)는 항목과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m=3.52)는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음.

<표 47> 시사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조사 결과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품질평가

- 다른 차원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60대와 20대 시청자들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시청자들은 낮게 평가함.
- ▷ 품질평가에 대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다른 연령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반면 40대 시청자 집단은 다른 연령층의 시청자 집단에 비해 낮게 평가함. 그런데 특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는 항목과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는 항목에서는 20대 시청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했음.

- ▷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는 항목에서는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73)가 가장 높고 2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24)가 가장 낮았음.
- ▷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는 항목에서도 6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73)가 가장 높고 2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m=3.38)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음.
- ▷ 따라서 높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은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들보다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 품질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음.

<표 48>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품질이 우수하다.	3.48	3.47	3.42	3.40	<b>3.54</b>	n.s.
만족한다.	3.48	3.48	3.41	3.46	<b>3.64</b>	n.s.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	3.24 <sup>a</sup>	3.36 <sup>ab</sup>	3.33 <sup>ab</sup>	3.29 <sup>ab</sup>	<b>3.52<sup>b</sup></b>	f(4,955)=2.616*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	3.38 <sup>a</sup>	3.42 <sup>a</sup>	3.45 <sup>ab</sup>	3.45 <sup>ab</sup>	<b>3.73<sup>b</sup></b>	f(4,995)=4.359**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품질평가

- 다른 차원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와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이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품질평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들의 품질평가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보수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품질을 높게 평가하고, 중도성향의 시청자 집단은 낮게 평가하는 이 같은 경향이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마도 이러한 경향성은 MBN 시사 프로그램들이 보수 논객과 진보 논객들이 참여하여 대립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 포맷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9>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품질평가(KI)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품질이 우수하다.	<b>3.52</b>	3.51	3.47	3.38	3.41	n.s.
만족한다.	<b>3.67</b>	3.50	3.50	3.36	3.61	n.s.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	3.39	3.33	3.38	3.24	<b>3.41</b>	n.s.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	<b>3.59</b>	3.54	3.50	3.35	3.52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 < .05$ , \*\*:  $< .01$

## 7) 진행자 평가

### (1) 프로그램별 진행자 평가

- 시청자들은 MBN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신뢰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 본 조사연구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평가를 위해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를 위한 8가지 항목의 측정항목을 원용하여 측정하였음.
- ▷ 측정 결과는 다음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항목에서 평균 3.5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 ▷ 특히, ‘진행이 매끄럽다’(m=3.60)는 항목과, ‘정보전달에 설득력이

있다'(m=3.58)는 항목에 대해 시청자들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50>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평가 결과



평가항목	전체 (1,000)	아침엔 매일경제 (118)	MBN 뉴스와이드 (222)	뉴스 파이터 (385)	시사 스페셜 (85)	MBN 프레스룸 (195)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	3.60	3.80	3.76	3.48	3.56	3.53
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3.41	3.55	3.44	3.39	3.30	3.37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	3.52	3.62	3.66	3.42	3.56	3.47
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3.31	3.39	3.37	3.26	3.23	3.32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	3.48	3.43	3.42	3.61	3.37	3.35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	3.57	3.73	3.66	3.50	3.50	3.52
진행자의 정보 전달에 설득력이 있다.	3.58	3.69	3.62	3.59	3.47	3.48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	3.46	3.42	3.49	3.61	3.30	3.23

▷ 프로그램별로는 <아침엔매일경제>가 다른 차원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뉴스파이터>도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는 항목과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는 항목 등 2개 항목에서 MBN의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음. <MBN뉴스와이드> 역

시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는 항목에서 다른 시사 프로그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는 항목을 비롯하여 그 밖의 6개의 MBN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함.

## (2)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진행자 평가

- 다른 차원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60대 시청자의 평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40대의 평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 ‘진행이 매끄럽다’는 항목과 ‘신뢰감을 느낀다’는 항목, ‘호감을 느낀다’는 항목에서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이로써 60대 시청자 집단(m=3.77)은 40대 시청자 집단(m=3.47)보다 진행자에 대해 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음.

<표 51> 연령별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19-29세 (194)	30대 (225)	40대 (188)	50대 (178)	60대 (214)	통계값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	3.64 <sup>ab</sup>	3.58 <sup>ab</sup>	3.47 <sup>a</sup>	3.55 <sup>ab</sup>	<b>3.77<sup>b</sup></b>	f(4,995)=3.144*
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3.38	3.34	3.32	3.41	<b>3.60</b>	f(4,995)=2.742*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	3.46	3.51	3.42	3.56	<b>3.65</b>	n.s.
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3.24	3.22	3.23	3.37	<b>3.48</b>	f(4,995)=2.745*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	3.43	3.45	3.44	3.46	<b>3.61</b>	n.s.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	3.49	3.50	3.50	3.64	<b>3.70</b>	n.s.
진행자의 정보 전달에 설득력이 있다.	3.49	3.53	3.53	3.67	<b>3.67</b>	n.s.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	3.41	3.44	3.42	3.46	<b>3.56</b>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2)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진행자 평가

○ 보수성향의 시청자와 진보성향의 시청자들은 MBN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에 대해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높게 평가함.

▷ 진행자 평가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성향의 시청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중도진보와 진보성향의 시청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표 52> 정치적 성향별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평가 분산분석(ANOVA)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보수 (70)	중도 보수 (174)	중도 (486)	중도 진보 (209)	진보 (59)	통계값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	3.77	3.60	3.59	3.57	3.56	n.s.
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3.61	3.42	3.41	3.31	3.48	n.s.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	3.64	3.51	3.52	3.49	3.52	n.s.
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3.36	3.30	3.32	3.29	3.23	n.s.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	3.70	3.47	3.49	3.40	3.37	n.s.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	3.77	3.48	3.57	3.55	3.61	n.s.
진행자의 정보 전달에 설득력이 있다.	3.69	3.60	3.57	3.54	3.57	n.s.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	3.50	3.46	3.48	3.39	3.52	n.s.

주) 알파벳 첨자는 사후검증(Scheffe) 결과 집단간 차이를 의미, \*: p<.05, \*\*: <.01

▷ 이같이 보수성향의 시청자들과 진보성향의 시청자들이 MBN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은 보수 논객과 진보 논객으로 양분된 패널들과 함께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포맷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포맷이 극단의 정치적 성향(보수-진보)을 가진 시청자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고, 진행자가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중도성향(특히, 중도진보)의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포맷은 흥미를 촉진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란

추론이 가능함. 그런데 중도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은 보수 성향의 시청자보다는 낮게 평가하지만, 중도진보 성향의 시청자들보다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발전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모든 항목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시청자들은 진행자 평가는 비슷하게 평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8) 소결

- 모든 7가지 차원의 평가에서 시청자들은 MB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7가지 차원-공정성 평가,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의 평가를 보다 요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평가 차원의 평가항목을 평균하여 각 차원의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여 보았음.
  - ▷ 7가지 평가 차원들 중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차원은 사회적 책임 차원( $m=3.70$ )이고, 다음은 다양성 차원( $m=3.54$ ), 사회적 기능 차원( $m=3.51$ ) 순으로 내려감. 이들 차원 모두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
  - ▷ 그 밖의 공정성 차원( $m=3.41$ ), 공익성 차원( $m=3.41$ ), 품질평가 차원( $m=3.44$ ), 진행자 평가 차원( $m=3.49$ ) 등의 항목들도 모두 평균 3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받음.
- 연령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들은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60대와 20대 시청자 집단은 다른 연령대의 시청자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반면, 40대 또는 50대 시청자 집단은 낮게 평가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 ▷ 특정한 항목에서 20대 시청자 집단은 매우 높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때로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향은 MZ 세

대인 20대 시청자 집단의 시청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됨. 따라서 향후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주도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측정항목에서 40대와 50대 시청자 집단의 평가가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연령에 따른 속성도 기인하겠지만,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심층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 ▷ 특히 30대에서 50대까지의 시청자들은 향후 MBN 시사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하는 시청자 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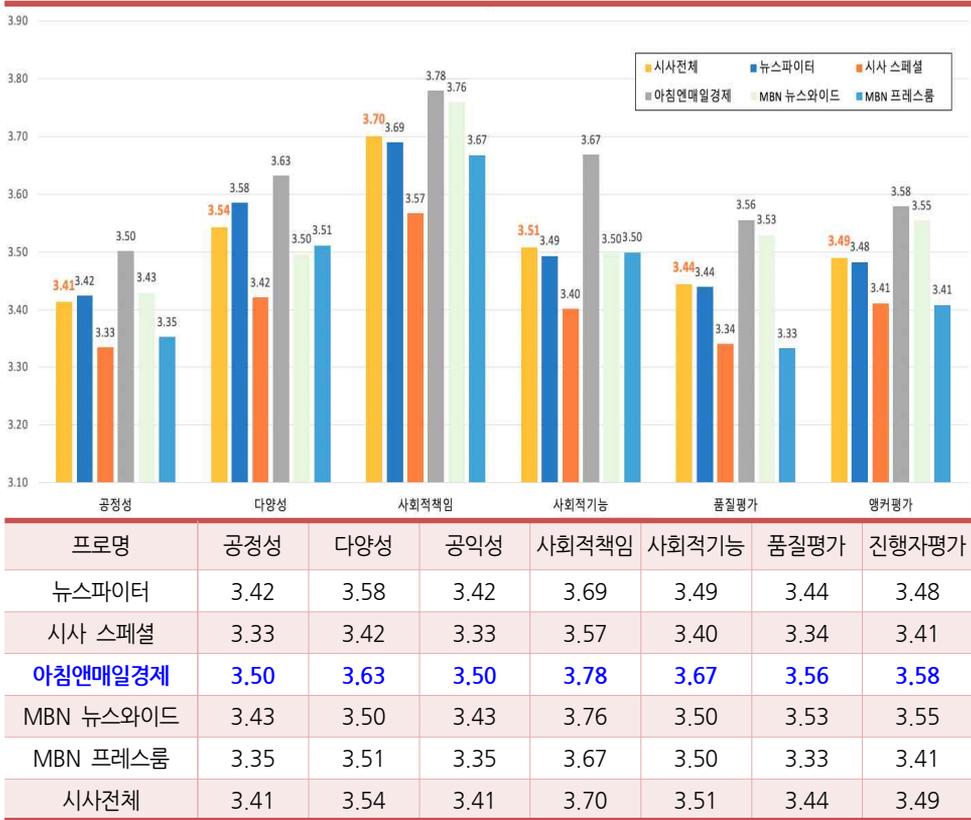
○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된 시청자 집단은 MB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물론 이들 집단 간의 평가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적었지만,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시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중도진보에 속한 시청자들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 이 같은 결과는 보수 논객과 진보 논객을 참여시켜 대립적 논쟁을 유발하게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포맷과 관련 있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 따라서 보수성향의 시청자들이나 진보성향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이 참여하여 논쟁하기 때문에 흥미를 갖지만, 중도 성향의 시청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추론이 가능함.
- ▷ 그러나 중도보수,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시청자들 중에서 일관되게 중도진보의 시청자 집단의 평가치가 낮게 산출되는 것은 진행의 편파성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음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7개 차원의 평가-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에서 <아침앤매일경제>가 모든 항목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 <MBN뉴스와이드>가 모든 항목에서 <아침엔매일경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들을 부여받음.

<표 53> 시사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별 결과



- ▷ 7개 차원의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각 차원의 평가항목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받은 점수를 평균하여 해당 차원의 점수를 산출함.
- ▷ 여기서 <아침엔매일경제>는 모든 차원의 평가항목-공정성(3.50), 다양성(3.63), 공익성(3.50), 사회적 책임(3.78), 사회적 기능(3.67), 품질평가(3.56), 진행자평가(3.5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 물론 <시사스페셜>은 합산된 모든 차원의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프로그램 별 평가 결과는 <표 54>에 제시되어 있음.

<표 54> 시사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차원	평가항목	시사 전체	뉴스 파이터	시사 스페셜	아침&매 일경제	MBN 뉴스와이드	MBN 프레스룸
공정성	차원평균	3.41	3.42	3.33	3.50	3.43	3.35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3.60	3.63	3.51	3.75	3.61	3.48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3.51	3.45	3.48	3.69	3.57	3.46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와 시간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3.43	3.38	3.19	3.68	3.51	3.40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3.41	3.32	3.21	3.62	3.52	3.39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한다	3.40	3.35	3.34	3.48	3.45	3.42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3.39	3.32	3.32	3.52	3.49	3.38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3.48	3.46	3.36	3.71	3.51	3.40
다양성	차원평균	3.54	3.58	3.42	3.63	3.50	3.51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도한다	3.62	3.75	3.37	3.64	3.54	3.57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제공한다	3.57	3.59	3.43	3.63	3.56	3.57
	사회적 현안을 전달한다	3.72	3.80	3.57	3.82	3.65	3.65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3.63	3.62	3.45	3.75	3.67	3.61
	다양한 의견과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42	3.39	3.45	3.59	3.38	3.43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28	3.34	3.25	3.36	3.18	3.23
공익성	차원평가	3.41	3.42	3.33	3.50	3.43	3.35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한다	3.56	3.62	3.54	3.60	3.50	3.47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	3.57	3.58	3.49	3.63	3.58	3.52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	3.28	3.25	3.19	3.43	3.32	3.23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3.27	3.25	3.17	3.38	3.30	3.23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3.40	3.42	3.27	3.47	3.45	3.32

사회적 책임	차원평균	3.70	3.69	3.57	3.78	3.76	3.6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3.53	3.46	3.47	3.65	3.64	3.50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58	3.53	3.47	3.74	3.65	3.52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3.80	3.77	3.72	3.91	3.90	3.72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3.81	3.82	3.68	3.83	3.89	3.76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다	3.76	3.78	3.65	3.77	3.79	3.73
	건전한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78	3.81	3.61	3.87	3.76	3.77
	아동/청소년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3.79	3.80	3.64	3.86	3.85	3.73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재난방송, 재해 방송 등)	3.55	3.54	3.30	3.62	3.59	3.60
사회적 기능	차원평균	3.51	3.49	3.40	3.67	3.50	3.50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제공한다	3.39	3.36	3.34	3.57	3.41	3.33
	소득/성별/세대/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46	3.45	3.37	3.63	3.44	3.44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3.63	3.64	3.41	3.74	3.63	3.62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와 접근을 쉽게 한다	3.56	3.52	3.49	3.74	3.51	3.60
	차원평균	3.44	3.44	3.34	3.56	3.53	3.33
품질 평가	품질이 우수하다	3.46	3.42	3.43	3.54	3.54	3.40
	만족한다	3.49	3.49	3.41	3.57	3.60	3.35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시청을 권유하고 싶다	3.35	3.34	3.21	3.52	3.41	3.23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고 싶다	3.48	3.51	3.31	3.58	3.56	3.35
	차원평균	3.49	3.48	3.41	3.58	3.55	3.41
진행자 평가	진행자의 진행이 매끄럽다	3.60	3.48	3.56	3.80	3.76	3.53
	진행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3.41	3.39	3.30	3.55	3.44	3.37
	진행자의 진행에 신뢰감을 느낀다	3.52	3.42	3.56	3.62	3.66	3.47
	진행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3.31	3.26	3.23	3.39	3.37	3.32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을 잘 대변한다	3.48	3.61	3.37	3.43	3.42	3.35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다	3.57	3.50	3.50	3.73	3.66	3.52
	진행자의 정보 전달에 설득력이 있다	3.58	3.59	3.47	3.69	3.62	3.48
	진행자가 카리스마 있다	3.46	3.61	3.30	3.42	3.49	3.23

#### 4. 다른 채널과의 비교

- MBN에 편성된 뉴스 프로그램들과 시사 프로그램들을 다른 채널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잘 실현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 조사를 수행했음.
  - ▷ 다른 방송 채널들과의 비교를 위해 앞서 논의된 7가지 차원-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 품질평가, 진행자 평가- 중에서 진행자 평가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평가 차원을 비교 평가함.
  - ▷ 선정된 방송사들 간의 이들 6개 차원의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차원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그 차원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1개씩 선정함.
  - ▷ 비교 대상의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로 지상파방송(MBC)과 종합편성채널(TV조선)을 선정하고, 이들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 및 시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측정항목 평가를 조사함.

<표 55> 타 채널 뉴스/시사 프로그램 전체 평가항목

평가 차원	대표 평가항목
공정성	사안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다양성	다양한 의견,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공익성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사회적 책임	사회와 가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품질평가	품질이 우수하다

- ▷ 비교를 위해 선정된 채널들의 측정치들과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 및 시사 프로그램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첫째, 동일한 항목의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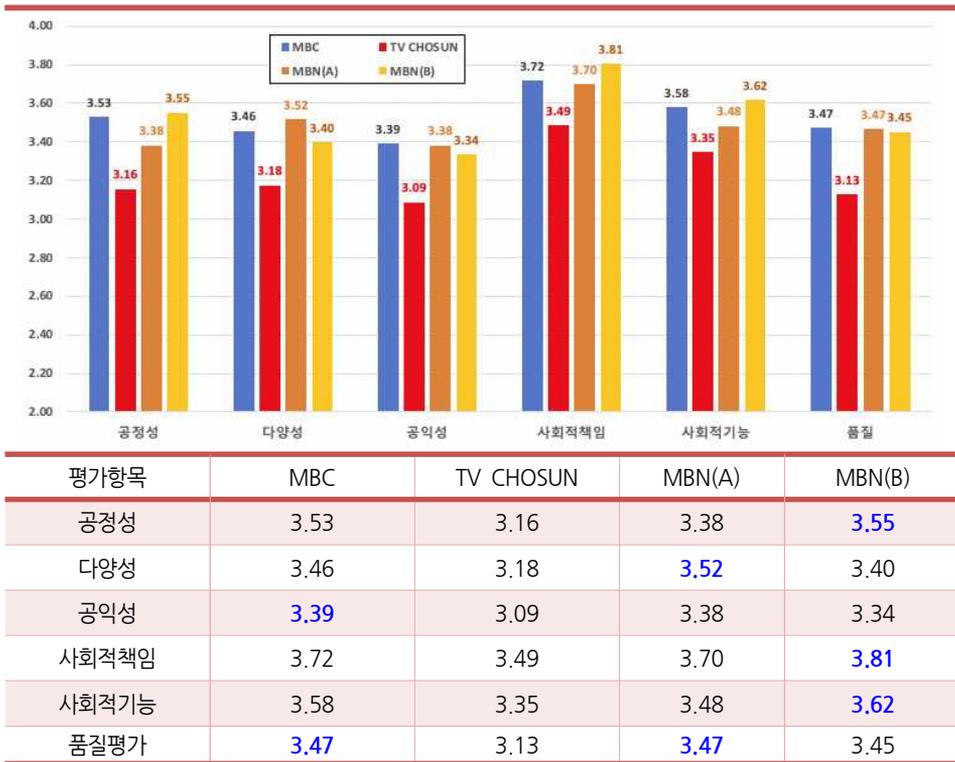
정치를 직접 비교하는 MBN(A) 분석 방법과 둘째,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과 시사 프로그램의 각 차원의 평가항목을 평균한 측정치를 비교하는 MBN(B) 방식으로 구분하여 2가지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였음.

## 1) 뉴스 프로그램 평가결과

-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TV조선과 비교할 때 모든 항목에서 동일 비교 방식인 MBN(A)와 차원별 평균값인 MBN(B) 모두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았으며, 지상파방송인 MBC와도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음.
  - ▷ TV조선 뉴스 프로그램과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MBN(B))을 비교할 때, 다음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성은 TV조선은 3.16로 평가된 반면 MBN(A)는 3.38,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55로 높게 평가됨
  - ▷ 다양성은 TV조선은 3.18에 비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52,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0로 높게 평가됨.
  - ▷ 공익성은 TV조선은 3.09인 반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38,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34로 높게 평가됨.
  - ▷ 사회적 책임은 TV조선은 3.49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70,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81로 높게 평가됨.
  - ▷ 사회적 기능은 TV조선은 3.35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48,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62로 높게 평가됨.
  - ▷ 프로그램 품질평가는 TV조선은 3.13인데 비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47,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5로 높게 평가됨.

- <MBC>와의 비교에서는 차원별 평균값은 다소 적게 나타났지만, 동일 문항으로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은 결과를 보임.
- ▷ MBC 뉴스 프로그램과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MBN(A)과 MBN(B))을 비교할 때 공정성은 MBC 3.53인데 반해 동일한 측정 항목인 MBN(A)는 3.38로 낮았지만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55로 높았음.

<표 56> 보도 프로그램 평가의 채널 간 비교



- ▷ 다양성에 있어서는 MBC가 3.46에 비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52로 더 높게 평가되었으나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0으로 다소 낮은 평가였음.
- ▷ 공익성은 MBC가 3.39인 반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38로 유사한 수준인 반면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

인 MBN(B)는 3.34로 다소 낮은 평가로 나타남.

- ▷ 사회적 책임은 MBC가 3.72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70으로 유사한 수준인 반면,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81로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 기능은 MBC가 3.58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48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62로 더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음.
- ▷ 프로그램 품질평가에서는 MBC가 3.47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도 동일하게 3.47의 평가를 받았고, 뉴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5로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됨.

## 2) 시사 프로그램 평가

- MBN 시사 프로그램은 TV조선와 비교할 때, 다음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 비교 방식인 MBN(A)와 차원별 평균값인 MBN(B) 모두에서 높았음. 특히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는 되는 반면, MBN 시사 프로그램들은 모든 항목에서 뉴스 프로그램보다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서 그 차이가 더욱 커졌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TV조선 시사 프로그램과 MBN 시사 프로그램(MBN(B))을 비교할 때, 다음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성은 TV조선은 3.13로 평가된 반면 MBN(A)는 3.41,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55로 높게 평가됨
- ▷ 다양성은 TV조선은 3.15에 비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54,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2로 높게 평가됨.
- ▷ 공익성은 TV조선은 3.07인 반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41,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0로 높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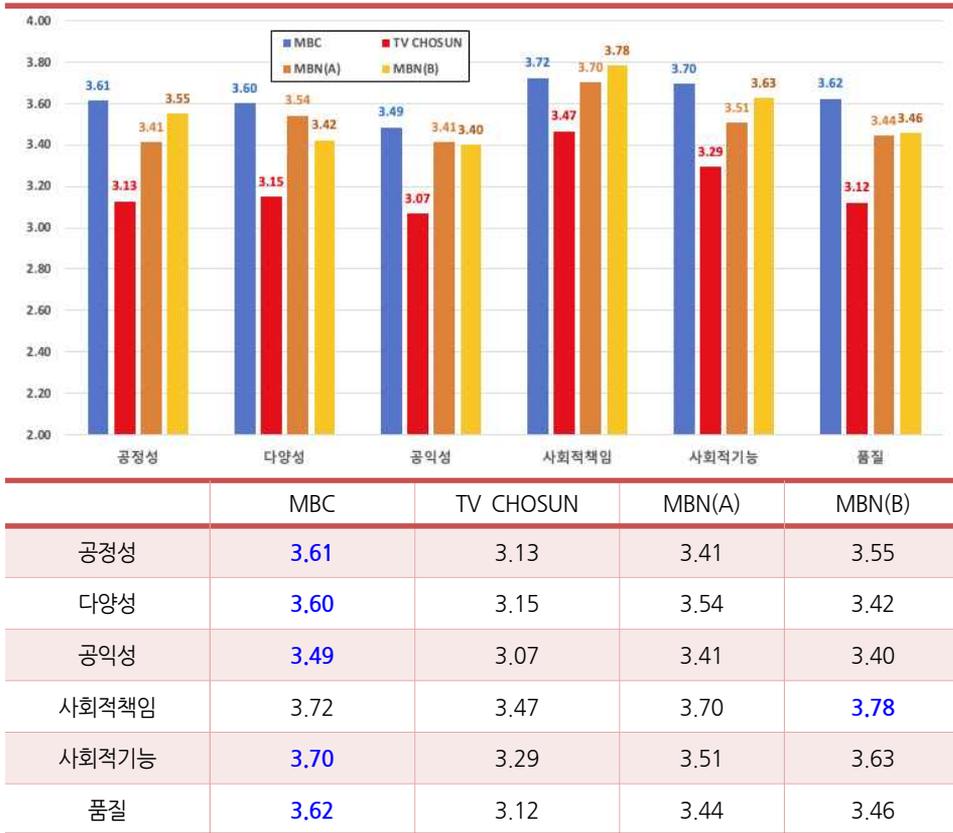
- ▷ 사회적 책임은 TV조선은 3.47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70,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78로 높게 평가됨.
- ▷ 사회적 기능은 TV조선은 3.29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51,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63로 높게 평가됨.
- ▷ 프로그램 품질평가는 TV조선은 3.12인데 비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44,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6로 높게 평가됨.

○ <MBC>와의 비교할 때, 다음 <표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MBC 시사 프로그램과 MBN 시사 프로그램(MBN(A)과 MBN(B))을 비교할 때 공정성은 MBC 3.61인데 반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41,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55로 다소 낮음.
- ▷ 다양성에 있어서는 MBC가 3.60에 비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54,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2으로 다소 낮게 평가됨.
- ▷ 공익성은 MBC가 **3.49**인 반면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41,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0로 낮게 평가됨.
- ▷ 사회적 책임은 MBC가 3.72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70으로 유사한 수준인 반면,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78로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 기능은 MBC가 3.70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는 3.51,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63로 다소 낮게 평가됨.

- ▷ 프로그램 품질평가에서는 MBC가 3.62인데 동일한 측정항목인 MBN(A)도 동일하게 3.44, 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공정성 평가치인 MBN(B)는 3.46로 낮게 평가됨.

<표 57> 시사 프로그램 평가의 채널 간 비교



- MBC와의 비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의 포맷이 다른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 ▷ MBC의 경우 시사 프로그램은 <취재수첩> 등과 같은 심층취재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반면,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이 참여하는 논쟁 수준의 토론형식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 형식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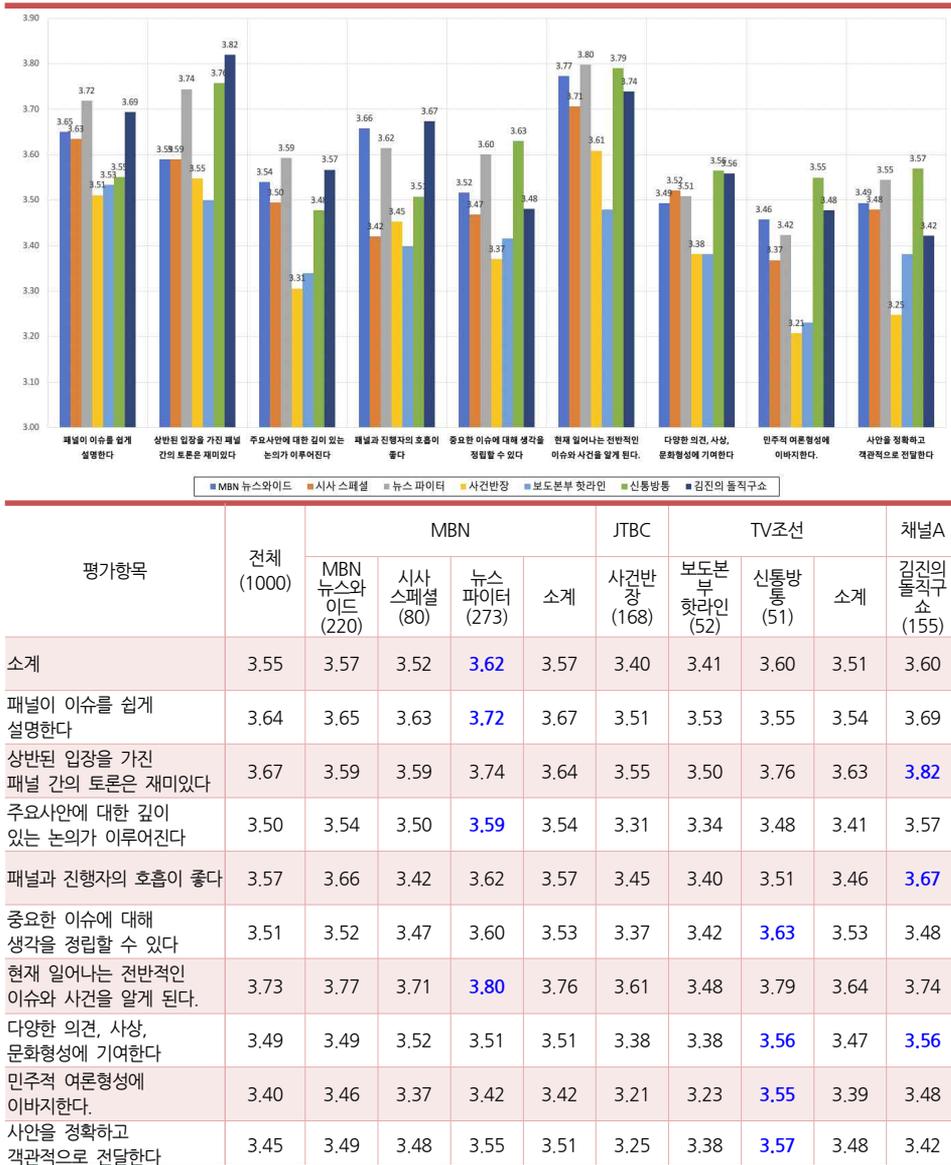
## 5. 패널이 등장하는 시사 프로그램(패널토론프로그램) 평가

- 개국 초기부터 종합편성채널에서 새롭게 시도된 패널토론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방송프로그램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음.
- ▷ 패널토론프로그램은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확보와 채널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 패널토론프로그램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패널들이 패널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시청자들은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 포맷인 심층취재프로그램에 비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패널들이 출연하여 이들 간에 벌어지는 격렬한 토론이 재미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 시청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패널토론프로그램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패널토론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야기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9가지 측정항목을 구성해서 측정하였음.
- ▷ ‘패널이 이슈를 쉽게 설명한다’, ‘상반된 입장을 가진 패널 간의 토론은 재미있다’, ‘주요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패널과 진행자의 호흡이 좋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현재 일어나는 전반적인 이슈와 사건을 알게 된다’, ‘다양한 의견, 사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사안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 ▷ 각 채널별 대표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함.

- MBN의 패널토론프로그램은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 ▷ 본 조사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패널토론프로그램인 MBN의 <MBN 뉴스와이드>와 <시사 스페셜>, <뉴스 파이터>, JTBC의 <사건반장>, TV조선의 <보도본부 핫라인>과 <신통방통>,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에 대해 위에서 논의한 9가지 평가항목으로 측정하였음.
  - ▷ 측정 결과, 다음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널토론프로그램들 중에서 MBN의 <뉴스파이터>가 9개 측정항목의 평균값에서 3.6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은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와 TV조선의 <신통방통>이 3.60이었으며, 이어 MBN의 <뉴스와이드>와 <시사스페셜>이 3.57과 3.52로 뒤를 이었고, TV조선의 <보도본부핫라인>이 3.41, JTBC의 <사건반장>이 3.40으로 평가되었음.
  
- 모든 패널토론프로그램들이 기능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 패널토론프로그램의 기능과 관련하여 시청자들은 ‘현재 일어나는 전반적인 이슈와 사건을 알게 된다’(3.73)는 항목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으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패널 간의 토론은 재미있다’(3.67)는 항목과 ‘패널이 이슈를 쉽게 설명한다’(3.64)는 항목의 기능에 대해 높게 평가함.
  - ▷ 반면에 패널토론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3.4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들 패널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상대방의 정치적 주장을 공격하기만 하고, 서로 합의하지 않는 갈등을 조장하는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됨.
  - ▷ 또한 서로 논쟁하며 쟁점의 모든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패널토론프로그램에 대한 측정항목인 ‘사안을 정확 하

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3.45)는 항목 역시 낮은 점수를 받은 배경도 토론방식이 너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포맷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표 58〉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평가 비교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VI. 결론 및 제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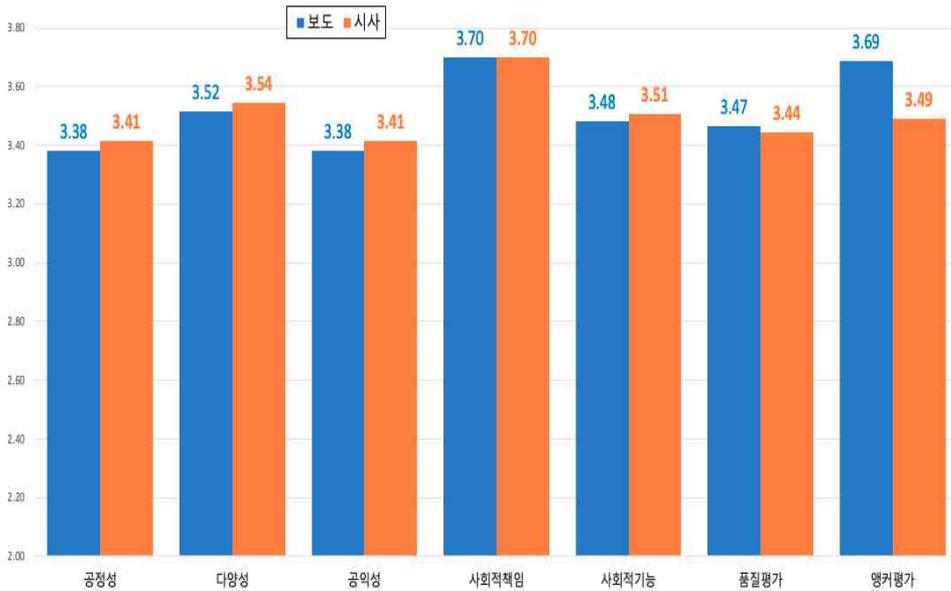
## Ⅵ. 결론 및 제언

### 1. 조사 결과 요약

-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의 개별 뉴스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을 심의한 결과를 총합하여 방송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합의된 기준을 설정하기 쉽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논의화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됨.
  
- 본 조사연구 목적은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프로그램 시청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여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 명확한 측정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5개 차원, 30개 항목을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된 품질평가(KI) 4개 항목, 진행자평가 8개 항목을 개발하여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 8개를 조사함.
  -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5개 차원의 대표 설문 항목을 설정하여 MBN의 결과와 비교함.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을 측정한 5개 차원 모두 3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품질평가와 진행자 평가도 3점을 상회하였음.
  - ▷ 특히 사회적 책임 차원은 뉴스·시사 프로그램 모두 평균 3.70을 기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다양성 차원도 평균 3점을 상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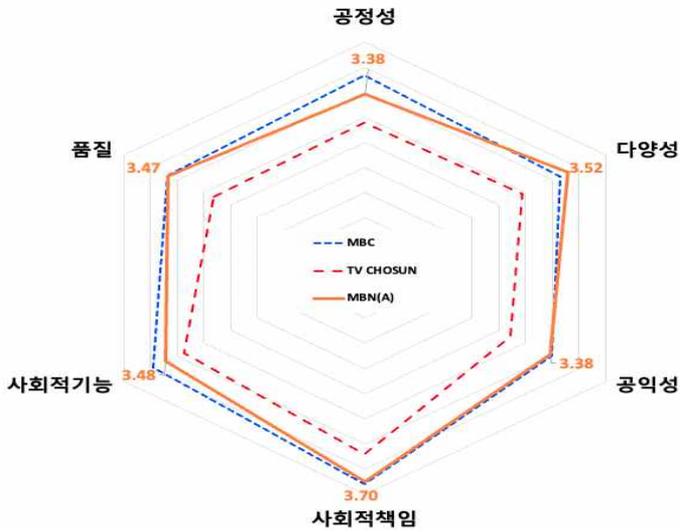
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 다만, 공익성과 공정성 차원은 평균 3점을 상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항목 이외에 추가로 조사한 품질 평가와 진행자평가도 3점을 상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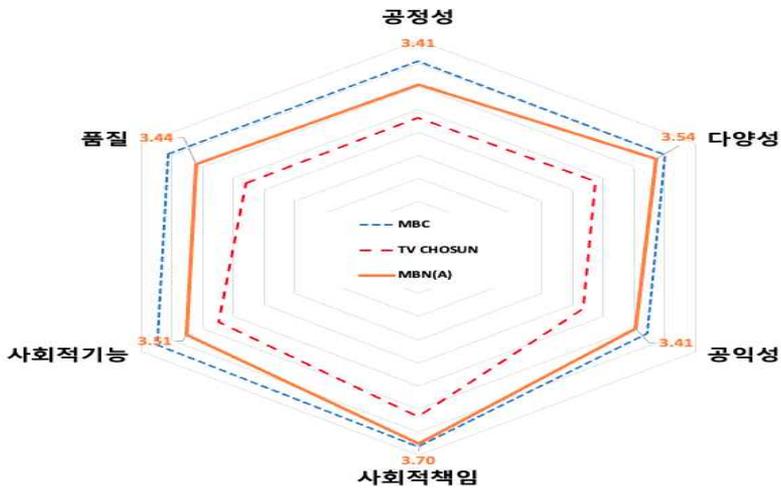
[그림 8]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 평가결과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른 채널과 비교하기 위하여 지상파 채널(MBC)과 종합편성채널(TV조선)의 뉴스·시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 조사하였음.
- ▷ MBN의 뉴스 프로그램은 MBC의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 차원은 MBC보다 높았음.



[그림 9] 뉴스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교

▷ MBN의 시사 프로그램은 MBC보다 낮고, TV조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10] 시사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교

## 2. 제언

-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시청자에게 조사 결과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차원의 평가들에 비해 공익성과 공정성 차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 공정성과 공공성 차원의 보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프로그램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함.

<표 59> 프로그램별 평가결과

	프로그램명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 평가	진행자 평가
보도	굿모닝 MBN	3.36	3.50	3.36	3.62	3.45	3.43	3.49
	뉴스와이드 주말	3.38	3.50	3.38	3.72	3.46	3.46	3.50
	<b>MBN 종합뉴스</b>	<b>3.39</b>	<b>3.52</b>	<b>3.39</b>	<b>3.71</b>	<b>3.49</b>	<b>3.47</b>	<b>3.75</b>
시사	뉴스파이터	3.42	3.58	3.42	3.69	3.49	3.44	3.48
	시사 스페셜	3.33	3.42	3.33	3.57	3.40	3.34	3.41
	<b>아침앤매일경제</b>	<b>3.50</b>	<b>3.63</b>	<b>3.50</b>	<b>3.78</b>	<b>3.67</b>	<b>3.56</b>	<b>3.58</b>
	MBN 뉴스와이드	3.43	3.50	3.43	3.76	3.50	3.53	3.55
	MBN 프레스룸	3.35	3.51	3.35	3.67	3.50	3.33	3.41

- ▷ 프로그램별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주당 편성 횟수가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평가 결과가 높았음. <MBN 종합뉴스>와 <아침앤매일경제>가 각 부분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획득함.
- ▷ 이러한 결과는 시청자의 관여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지만 매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이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어 불안정한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 MBN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차원-공정성과 공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은 직접적으로 해당 차원을 진작시키는 방법과 이들 평가차원과 관련성이 높은(즉, 한 차원의 평가가 제고되면 따라서 제고될 개연성이 있는 평가차원) 평가차원을 진작시켜 문제의 평가 차원을 개선하는 방법도 가능함.
  - ▷ 프로그램의 다양한 평가 차원들-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 진행자-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면, 관련성이 높은 한 차원이 개선되면 다른 차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 상관관계가 높은 두 개의 차원은 한 차원의 평가가 상승한다면 관련성이 높은 차원의 평가도 개선될 것이기 때문임. 왜냐하면 어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변인들의 내적 요인들이 상호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그래서 본 조사연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에서 다른 차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발전적 방안으로 직접적 방안과 상관관계가 높은 평가 차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 이러한 전제에서 MBN의 뉴스 프로그램 및 시사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차원의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평가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함.
  - ▷ MBN의 뉴스 프로그램 평가 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60>와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차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공익성 차원의 평가와 공정성 차원의 평가가 다양성 차원의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함.
  
- MBN의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차원과 공익성 차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최대 강점인 다양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 뉴스 프로그램 평가 차원인 공정성과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는 0.810이었으며, 공정성과 공익성 간의 상관관계는 0.804이었고, 공익성과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도 0.82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의 다양성 평가 차원이 개선되면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것임.
- ▷ 이민웅(2004)은 한국에 적합한 방송뉴스의 공정성 평가 척도를 개발하면서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여기서 다양성은 뉴스 아이템 선택의 다양성과 뉴스 처리의 다양성으로 구분했는데, 전자는 사회 내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뉴스 아이টে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함.
- ▷ 따라서 MBN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뉴스 아이টে를 다루고, 다양한 의견을 담은 형태의 뉴스 서비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표 60> 뉴스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 상관관계

	시청정도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 평가
시청정도	1						
공정성	.263**	1					
다양성	.261**	<b>.810**</b>	1				
공익성	.252**	<b>.804**</b>	<b>.821**</b>	1			
사회적책임	.185**	.680**	.695**	.703**	1		
사회적기능	.208**	.681**	.725**	.700**	.652**	1	
품질평가	.311**	.764**	.763**	.760**	.689**	.722**	1
진행자평가	.221**	.674**	.685**	.641**	.647**	.653**	.732**

\*: p<.05, \*\*: <.01

- 다음으로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차원의 평가와 공익성 차원의 평가 역시 다양성 차원 차원의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 뉴스 프로그램의 대안과 같은 개선방을 제안함.

- ▷ 시사 프로그램 평가 차원인 공정성과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는 0.829이었으며, 공정성과 공익성 간의 상관관계는 0.812이었고, 공익성과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도 0.84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 시사 프로그램의 평가 차원 상관관계

	시청정도	공정성	다양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능	품질 평가
시청정도	1						
공정성	.236**	1					
다양성	.251**	<b>.829**</b>	1				
공익성	.235**	<b>.812**</b>	<b>.842**</b>	1			
사회적 책임	.161**	.710**	.738**	.732**	1		
사회적 기능	.203**	.742**	.798**	.760**	.704**	1	
품질평가	.318**	.788**	.804**	.783**	.676**	.747**	1
진행자평가	.270**	.813**	.785**	.767**	.673**	.711**	.816**

\*: p<.05, \*\*: <.01

- 두 번째 개선 방안은 공정성과 공익성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그것은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저널리스트들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사 취재 및 제작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시청자와 함께하는 정신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자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함.
- ▷ 일상화된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매번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추가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보다는 제작진의 일상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견지에서 흔히 논의되는 것이 저널리즘 윤리 의식임. 저널리즘은 제작진이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가지는 윤리의식으로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정성과 일맥상통함.

- ▷ 따라서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MBN의 저널리즘 원칙을 합의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저널리즘이 객관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는바,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신장하는데 새로운 저널리즘 사조를 반영한 논의와 합의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 객관성 중심의 저널리즘은 웨스터스탈(Westerstahl)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사실성(Factuality),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분화되고, 사실성은 진실성(Truth), 관련성(Relevance)으로 구체화 되고, 불편부당성은 균형성(Balance), 중립성(Neutral Presentation) 개념으로 구체화 됨(윤석민 2015).
  - ▷ 반면,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는 사회구조에서 격리된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로서 저널리즘의 가치가 아니라 현실사회구조 속에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시민의 능동적 참여의 형태로 저널리즘의 영역을 확장함.
  - ▷ 저널리즘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함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뉴스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결론적으로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규제나 제도적 기구에 의해 개선되기보다 제작진의 기본적인 저널리즘 인식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임.
  - ▷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실제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명확한 관리체계를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임
  - ▷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널리즘 윤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확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됨.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문재완(2020).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공법연구』, 39(1), pp.193-222.
- 이강형·최현주(2012). 해외 선진국의 방송 공정성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담론과 정책』, 5(1), pp.71-98.
- 이향선. 2017. 10. 「국내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변화와 규제 이슈」. 『방송통신 심의동향』, 통권15호, 6-24.
-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 나남출판.
- 권형돈·하주용·배진아. 2015.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천 : 방송통신위원회.
- 김동윤. 2016. 방송 저널리즘을 향한 방송 뉴스의 규범적 희망. 장하용 외 (편), 『방송 저널리즘 혁신 : 지속과 파괴의 현장』(60-114쪽).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사승. 2013. 『현대 저널리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4 『2018 방송통신심의연감』.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12 『2019 방송통신심의연감』.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재웅·고성국·서상민. 2012. 『방송 저널리즘과 정치평론』.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 윤석민. 2015. 『미디어 공정성 연구』. 서울 : 나남.
- 원용진·전규찬 외. 2006.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령: 황우석, ‘PD수첩’ 그리고 한국의 저널리즘』. 서울 : 한나래.
- 이민웅. 1996.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 나남.
- 이민웅. 2003. 『저널리즘: 위기·변화·지속』. 서울 : 나남.
- 이민웅 외. 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 지식산업사.

- 정인숙. 2007.『방송정책 이론과 방법들』.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재하. 2014a.『영국의 방송통신 내용 규제 체계』.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재하. 2014b. 『독일의 방송통신 내용 규제 체계』.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지승호 외. 2010. 『PD수첩 진실의 목격자들』. 서울 : 북폴리오.
- KBS 공정성가이드라인 편집위원회. 2015. 『실무자를 위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서울 : 한국방송
- 최영목. 1997. 『방송공익성에 관한 연구: 방송공익성과 심의제도』.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남준·김수영. 2008. 「미국방송 공정성 원칙 규제정책의 변천 과정과 함의」.『방송통신연구』, 통권67권, 113-139.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한국언론학보』, 48권 5호,319-348.
- 강명현. 2016.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뉴스특성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5-36.
- 구교태. 2016.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자막 현상과 특성에 관한 연구」.『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37-58.
- 권오주·민영. 2015. 「정치엔터테인먼트 시청이 정치대화에 미치는 영향 : 관여도와 정치정보 효능감의 매개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73호, 7-34.
- 권형돈. 2014.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공법학연구』, 15권 2호, 23-52.
- 금희조·조재호. 2015.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시청의 주 효과 및 정치 성향과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9권 3호, 5-34.
- 김성훈·김동진. 2013. 「종합편성채널 수용자 연구 - 추구충족과 획득충족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28호, 47-95.
- 김영빈·한혜경. 2018.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의 정치현실 구성에 관한

- 연구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 JTBC<정치부 회의>에 대한 계층적/기능적 분화형식 분석」.『언론과 사회』, 26권 3호. 60-116.
- 김재영·이승선. 2015. 「방송심의의 정파성에 대한 시론적 검증 : 지상파와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보도 프로그램 심의 사례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권 4호, 49-85.
- 김정렴·전종우. 2017. 「정치예능 프로그램이 종합편성 채널 시청에 미치는 영향 : 콘텐츠 신뢰도와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28권 7호, 7-27.
- 남선현. 2004.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2권 4호, 104-135.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233-270.
- 남지나·최윤정. 2010. 「한국과 미국 TV뉴스의 대선보도 비교 : 신 단위의 형식과 내용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4호, 87-121.
- 류동협·홍성일. 2013.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방송통신연구』, 통권 85호, 9-36.
-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종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 <쾌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2권 2호, 5-63.
- 배진아. 2015.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적용 심의의결 사례분석」. 『방송통신연구』, 통권90권, 9-41.
- 성동규, 김인경, 김성희. 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 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뉴스의 이용동기와 지각된 뉴스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5호. 132-159.
- 손화정·이영주. 2019.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 특성 및 패널 발언과 정당 입장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19권 5호, 659-668.
- 송승호·김동규. 2018. 「다채널 시대 TV방송 평론가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OOH광고학연구』, 15권 2호, 5-25.

- 송인덕. 2016.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TV방송의 다양성 변화 연구 : 주시청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장르 다양성과 시청자 노출 다양성 분석(2011-2015)」.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399-434.
- 심훈. 2004. 「KBS, MBC, SBS 및 YTN의 뉴스 프로그램 비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5권 2호, 68-93.
- 양선희. 2017. 「TV뉴스 진행자 스타일 연구: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권 4호, 51-84.
- 오은정·민영. 2015. 「정치 엔터테인먼트 시청이 내재적 심리 욕구와 정치학 습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9권 4호, 44-73.
- 유경한·심훈·김경모. 2016.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선거 관련 대담 분석 :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 발화행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통권97권, 93-128.
- 유수정. 2018. 「종편 출범 초기의 지상파와 종편 메인뉴스의 주제 구성 및 다양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10호, 53-64.
- 유수정·이건호. 2017. 「메인 뉴스 논조 차별화가 드러낸 한국 종편 저널리즘의 지형: 무상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권 1호, 7-35.
- 유용민. 2018. 「대통령 탄핵심판 보도의 취재원 특성 : 지상파 및 종편 메인 뉴스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통권 102호, 9-45.
- 윤성옥. 2009.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권 1호, 37-77.
- 윤재홍. 2004. 「유권자의 뉴스미디어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 17대 총선 대학생 유권자의 신문, TV,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통권3호, 182-217
- 원희영·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 이기형. 2014.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

- 과 ‘흥분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과 학』, 통권78호, 104-128.
- 이상식. 200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 학보』, 통권20호, 111-139.
- 이승엽·양기문·이상우. 2017.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 보』, 31권 1호, 149-183.
- 이영주. 2016.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적 재조명 : 시사토크쇼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텔레비전 정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7호, 36-72.
- 이정훈·이상기. 201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7호, 9-35.
- 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6. 「선거 방송의 평가 기준과 실제 : 지상파와 종편의 제20대 총선 보도 전수 조사 분석」. 『방송통신연구』, 통 권 97호, 129-163.
- 이준웅·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 공정성, 타당성, 진정 성」. 『방송통신연구』, 통권67호, 9-44.
- 이창훈·우형진. 2011. 「방송심의 규제의 공정성 적용에 관한 연구 : 2003-2010년 방송심의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9권 3호, 7-56.
- 이춘구. 2015. 「미국 방송법제상 공정성 원칙의 전개 연구」. 『법학연구』, 통권 43권, 223-265.
- 이효성. 2019. 「만족도와 지속이용 의도에 미치는 포털뉴스의 이용동기 에 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19권 1호, 121-145
- 정은교·금희조. 2014. 「정보인가 오락인가 : 정치 예능 토크쇼의 정치적 효과」.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62-390.
- 정준희. 2016. 「종합편성채널의 부상과 오락적 정론장(政論場)의 형성 : 정치-미디어 체계 간 구조적 접속의 새로운 양상」. 『한국언론정 보학보』, 통권 77호, 73-107.

- 조은영·유세경. 2014.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 철도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433-461.
- 한수연·윤석민. 2016.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 저녁종합뉴스 보도관행에 대한 개입시계열 분석」. 『한국방송학보』, 30권 1호, 169-210.
- 한진만·김연식·박승현. 2014.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 운용과 비대칭규제에 대한 지상파 종사자들의 인식」.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1호, 74-118.
- 홍원식. 2018. 「언론 객관성의 실천적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 :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4권 4호, 183-226.
- 홍종윤·정영주·오형일. 2017. 「2000년대 이후 한국 방송 산업의 신규 매체 및 채널 도입 정책에 관한 통시적 접근 : 경쟁 정책 관점의 부재에 관하여」. 『언론정보연구』, 54권 3호, 173-219.
- Barkin, S. M. 2003. *American television news : The media marketplace and public interest*. 김응숙 역. 2004. 『미국 텔레비전 뉴스 : 미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Gillmor, D. 2004. *We the media : Grassroots journalism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CA : O'Reilly Media.
- Jamieson, K. H. & Cappella, J. N. 2008. *Echo chamber: Rush limbaugh and the conservative media establish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news*. (2nd ed). 이재경 역. 2014.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 Napoli, P. M. 2001. *Foundations of communications policy: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media*. NJ: Hampton Press, Inc.

- Rochco, B. 1975. *Newsmak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dson, M. 1978. *New discovering the news :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 New York : Basic Book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박흥수 역. 1995.『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서울: 나남.
- Cronauer, A. 1994. The fairness doctrine: 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47(1), 51-77.
- Durham, G. 1998. On the relevance of standpoint epistemology to the practice of journalism: The case for "strong objectivity". *Communication Theory*, 8, 117-140.
- FCC. 1974.7.18. Fairness doctrine and public interest standards: Handling of public issues. *Federal Register*, 39(139), 26372-26389.
- Peters, C. 2010. No-spin zones: The rise of the american cable news magazine and bill o'reilly. *Journalism Studies*. 11, 832-851.
- Ruane, K. A. 2011.6.13. Fairness doctrine: History and constitutional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14.
- Thchman, G. 1972. Objectivity is strategic ritu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660-679.
- Turner, J. The messenger overwhelming the message: Ideological cues and perceptions of bias in television news. *Political Behavior*, 29, 441-464.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책임연구원**

**전희락**([jeonheerak@gmail.com](mailto:jeonheerak@gmail.com))

- 중앙대학교 방송전공(학사, 석사, 박사)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한국방송학회 이사
- 한국언론학회이사
- MBC 시청자 위원
- EBS 시청자 위원
- EBS 경영평가위원
- 한국방송대상심사위원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현)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예회장
- (현)민주연구원 부원장
- (현)한국방송학회 엔터테인먼트연구회 회장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발행일 · 2022

발행인 · 류호길

발행처 · 매일방송(MBN)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Tel 02-2000-3114

홈페이지 <https://www.mbn.co.kr/>

편집 · 디자인 · 이진출판사